

'상대 후보 선거방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정당행사 이용 선거운동이면, 불법에 해당" 시장 통로 누구나 통과 가능, 막을 권리 없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광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 탐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으면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접근 대상 자체는 이강래 후보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엄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해 그동안 심적 고통이 컸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

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해당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피고인(이 의원)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막을 권리가 없다"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 이강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맘고생이 많았다"며 "재판을 받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 발전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이지 심각 부담이 컸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 좀 더 언행과 처신을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칼럼] 남의나라 대통령에 우리나라 국운이

대선 불복, 두 번의 탄핵, 세계 최대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임 대통령의 취임 참석의 전통을 깨고 핵무기 사용 권한이 든 핵가방까지 챙겨감으로서 신임 바이든에게 가방을 별도로 만들어 트럼프 가방은 무효화한다는 전언이다. 지구상 최강대국의 정치수준치고는 누가 봐도 실망이다.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민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폭력 선동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은 평소 미국답지 않은 모습이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권의 새 출발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도자의 정책방향이 가져올 각국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연한 그중 한반도안보문제는 가장 중요한 선제로 떠오를 것이며 북미관계에 따라 한국의 군사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국제 정세상 불가피한 일이다. 때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했다. 일각에서는 자국의 국무위원임명에 주적인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필쩍 뒤편 부인했다. 어쨌거나 자국중심의 보수적이었던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국가들은 정 반대의 성향을 가진 바이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에게 밋살 보였던 국가들은 성수기를 맞이한 분위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헝가리, 영국, 브라질, 러시아, 북한, 인도, 멕시코 등으로 자국중심의 강력한 정책을 펼친 국가들이다. 반대로 이란, 독일, 캐나다, 프랑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다소 진보적인 국가들은 봄날이 왔다는 분위기다. 중요한 건 북한과의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대한민국의 국운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추진했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선언한 바 있다. 지난번처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화려한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한반도 안보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웃 나라인 러시아, 중국과 일본,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외교정책은 자국의 국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현실적으로도 지구 반대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여차하면 전정태로 변했던 적이 한 두 번인가. 포성이 멎은 지 73년, 절대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은 전란 바로이전에는 항상 평화로웠던 것인데 원해서 생긴 일일까. 영원한 전쟁이 없듯이 영원한 평화 또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지리

덕암/김근석

서울역사박물관, 사전예약제로 운영재개... 무료 기획전시 풍성

서울 생활사 박물관 기획 전시 '세대 공감 - 최달용의 서울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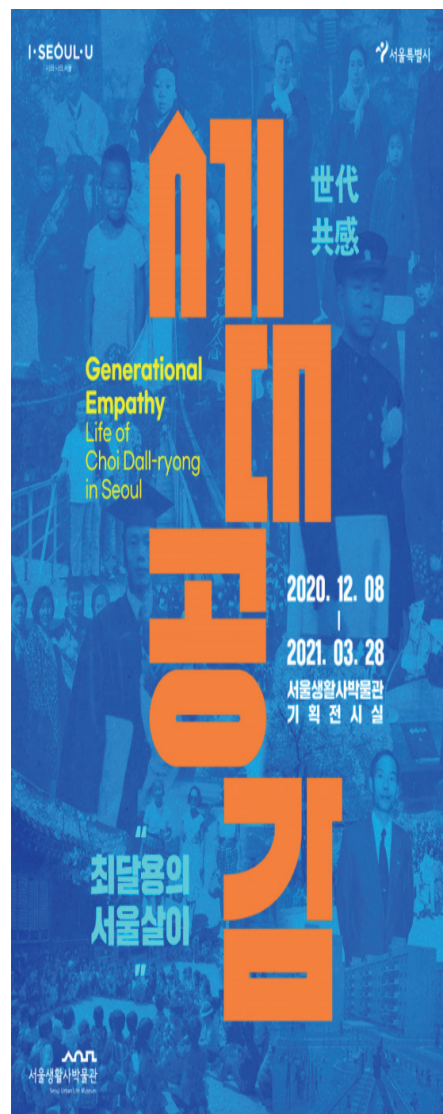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조정됨에 따라 서울역사박물관은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기획전시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현재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시는 서울생활사박물관 '세대 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 청계천박물관 '미디어아트X세운상가', 한양도성박물관 '광희문, 수구문, 시구문',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한양의家, 견평방 가옥' 등 사전예약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을 비롯해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동대문역사관·동대문운동장기념관, 경희궁, 백인제가옥 등을 비롯한 11개의 분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방둥이 서울사람 최달용의 1950~70년대 삶을 사회학자의 시선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산업화 세대를 공감해 볼 수 있는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 '세대 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는 오는 3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최달용 씨는 초등학교 졸업장부터 혼수용품, 변리사 자격증에 이르는 개인 자료 뿐 아니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평생 성실히 모았다. 그 중 일부인 1,181건을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에 기증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성취를 이룬 해방둥이들은 전셋의 급주위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이자, 성장의 과실을 맛본 첫 번째 세대이다. 최달용의 기증 자료 및 개인 소장 자료 90여점과 당시의 시대상을 담은 유물 80점을 함께 전시했다. 전시의 '도입부'에는 '그때의 청년이 지금의 청년과 마주하다'라는 영상이 상영되는데, 서울이라는 같은 공간 속에 다른 시대의 청년이 서로 마주보는 장면을 연출해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끈다. 이어지는 '사회학자의 서재'에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의 주요사건들을 유물과 함께 조망한 후 본격적으로 최달용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피난 셋방살이부터 변리사가 되기까지'에서는 학업,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곡점들을 따라 가면서 아버지 세대가 살아내었던 매일매일의 일상과 당시 서울의 시대상을 들여다본다.

술의 만남에 주목한 전시 '미디어아트X세운상가'는 오는 5월 9일까지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1970~80년대, 텔레비전의 유행과 수리가 가능했던 공간, 세운상가. 종로와 중구 일대 라디오·텔레비전학원 출신 기술인력의 일부는 청계천 주변의 전자상가에 정착하며 전자 회로도를 공유하고 나름의 기술을 축적했다. 한국 미디어아트의 산실 세운상가 1960년대 실험적인 새로운 방식의 예술을 선보인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이 중고 TV를 사기 위해 거닐었던 곳이 세운·청계천변이며 테크니션 이정성이 기술 익히며 성장한 곳도 세운상가다. 전시에서는 공개되는 백남준의 스케치 100여 점과 백남준의 '자화상 달마도'를 만날 수 있다. '84 SITRA 삼성관에서 429대의 TV를 설치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기술자 이정성은 세운상가에서에서 익힌 기술력으로 분배기를 제작해 여러 대의 TV를 연결했고 백남준에 선택된 이후 다다익선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백남준의 작품제작을 함께한다. 진짜 세운상가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세운, 예술공장에서 여전히 활발한 미디어 아트 제작이 이루어진다. 세운상가는 초심자부터 노련한 예술가까지 모든 이들의 탐구·창조하는 모험을 돕는 공간이다. 세운상가의 장인들과 인공위성 'OSSI-1'을 만든 미디어 아티스트 송호준의 인터뷰와 현재 활동 중인 미디어 작가그룹의 작업을 소개한다. 또한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자원을 활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서울익스프레스의 'Mechanical Water Stream'을 감상하고 그 제작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공개했다. 조선시대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광희문의 역사와 변화상을 소개하는 전시 '광희문, 수구문, 시구문'은 오는 3월 7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광희문은 도성의 동남쪽 작은 문으로 수구문, 시구문 등의 여러 별칭으로 불렸다. 이번 전시는 각각의 이름에 얽힌 광희문의 특징과 역할, 시대적 사건들을 통해 문의 역사와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도성의 동남쪽 작은 문' 부분에서는 1396년 건설된 광희문이 현재에 이르는 동안 개축, 훼손을 거쳐 다시 복원되기까지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본다. 특히 병자호란 때 피난길에 올랐던 왕이 광희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함께 소

개된다. 이어지는 '광희문의 또 다른 이름' 부분에서는 광희문을 지칭하던 각각의 별칭과 그에 얽힌 광희문의 특징, 시대적 배경 등을 살펴본다. 광희문의 이름은 본래 '빛이 멀리까지 사방을 밝힌다'는 의미였으나 수문 근처에 위치했다 해 수구문으로 더 많이 불렸고 구한말에는 '시체를 옮기는 입구'라는 험악한 별명으로도 불렸다. 특히 조선시대 도성 안에는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모든 시신은 성밖으로 내보내 매장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성의 동쪽 밖으로 나가는 백성들의 장례행렬은 모두 광희문을 통해 나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상·장례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관련 고문헌, 그림, 상여장식 등의 유물이 함께 소개된다.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광희문을 통해 드나들었던 옛 장례 풍경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양 최대 변화가 있던 견평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한양의家, 견평방 가옥'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5월 2일까지 개최한다. 견평방 도시유적전시관이 위치한 지역은 조선시대 한양 견평방으로 현재 청진동, 공평동, 인사동 일대로서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전에 직접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거나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했다. 전시는 한양이 수도가 되면서 백성들의 주거지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발굴·기록 자료를 근거로 당시 견평방에 위치했던 가옥을 모형으로 제작해 전시했다. '한양의家, 견평방 가옥'을 통해, 약 100년간 견평방에 있었던 가옥의 거대 과정 중 생산되었던 고문서를 전시·해설해 한양에서 가옥이 거래되는 과정을 생생히 알 수 있다. 또한, 발굴을 통해 드러난 성과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견평방에 있었던 가옥 중 특징적인 3곳을 선정해 모형으로 제작했고 당시 생활상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이번 전시 외에도 서울역사박물관 본관에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양을 지켰던 삼군영 군인들을 다룬 '한양을 지켜라_삼군영 소속 한 군인 집안의 고군분투기'와 1880~1980년대까지 100년 교육사를 조망하는 '서울학교 100년' 전시를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

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 회당 2시간 관람 가능하다. 관람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도록을 E-book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 전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박물관 기획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VR 온라인 전시도 준비 중에 있다. '온라인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유물, 설명 패널, 영상 같은 콘텐츠를 온라인에 완벽하게 재현한 가상현실 전시이다. 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싶은 관람객을 위해 전시해설 영상도 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시 영상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배현숙 관장은 "관람객은 입장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신원확인 및 방역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 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어디서나 서울역사박물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국제학회에서 잇따라 소개되며 관심 집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에서 소개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에서 현지 시각 20일 19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밝혔다. 김 수석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효과가 있었다"며 "이처럼 높은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그 건물주에 그 임대인의 참 사랑 실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착한 건물주에 착한 음식점'의 지역사회 따뜻한 선순환 모습에 감사의 마음 전달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건물주에 착한 음식점 운동'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는 청라 우사미 식당을 20일 방문해 건물주와 음식점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코로나19 확산과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등으로 지역사회 맞닿은 청라 우사미도 매출하락을 면치 못했다.그러나 3년 가까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인연을 이어온 건물주가 이를 걱정해 임대료를 면제해 줬다.이에 우사미 대표도 절약된

임대료를 지역사회에 베풀자는 마음으로 주요 식사 메뉴 가격을 연중 할인해 건물주의 마음을 이어갔다.이날 신은호 의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착한 건물주에 착한 음식점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이번 우사미 식당의 사례로 인해 앞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유민수 우사미 대표는 "건물주의 배려를 할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다시 나눠줬

을 뿐인데, 이렇게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 정부방역수칙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야간 근무 직원까지 단 한명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다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보람이었다"며 미소로 화답했다.한편 유민수 우사미 대표는 코로나시대 음식료 인하뿐 아니라 배달대신 테이크아웃 방식을 통한 음식상품권 지급 등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김종남/기자

이영봉 의원,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제1정당회의실에서 정희시 의원, 왕성욱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모자회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

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보존사업을 펼치기 위해 개최됐다.정담회를 주재한 이영봉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했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기념사업 추진 등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탑과 기념식 등을 추진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간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고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문고 축구 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광문고등학교에서 축구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광명시의회 이일규 의원, 광명시체육회 유상기 회장을 비롯해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장, 투자전략팀장이 참석했고 학교 측에서는 교장, 축구부 감독, 체육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정담회는 1999년 축구부를 창단해 경기도 및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 실력을 발휘하는 광문고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대운 의원은 "광문고 인조잔디 구장이 2013년에 조성돼 그간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노후화가 심각해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조잔디 구장에서 최선의 경기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체육회, 시청, 학교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같이한 만큼 인조잔디 개선과 버스 교체에 대해 충

분한 논의를 거쳐 광문고 축구부 발전에 의미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광명시 관내 유일의 공립 고등학교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광문고 인조잔디 구장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버스 교체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훈련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노후 인조잔디 구장 개선은 축구로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광명시의 부속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평생학습 도시 개념에 병행하는 평생건강도시 광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45인승 버스 역시 10년이 경과해 학생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창단 초기부터 광문고 축구부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광명시체육회 유상기 회장은 "광명시에서 축구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의 안정적 진로를 위해서라도 광문고 축구부 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시 체육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광명시의회 이일규 의원 역시 "광문고 인조잔디 사정이 어렵고 버스 역시 노후됐다는 말을 듣고 실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정대운 의원은 "정담회 결과 광문고 축구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한 뒤, "축구 환경 개선은 단순히 어느 한 학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광일초, 광명중, 광문고로 이어지는 축구 진로 로드맵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명시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을 강화하는 연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정 의원은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인권보장, 최저학력 보장으로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등 최근 스포츠 혁신의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 심사...주요업무 계획 청취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3건 '수정 가결'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 '원안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교육안전위원회가 이날 조례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교안위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규정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범위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조손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

정 가결했다. 또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각종 안내와 상담을 수행하는 민원 상담인의 위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됐다.아울러 수정 가결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소방시설 우선 설치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교안위 위원들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 받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신종 감염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재은/기자

김경호 도의원, 국토부 자연보전권역 차등 관리 검토, 그러나 갈길 멀어

경기도와 가평군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4차 수도권경비계획이 고시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수도권경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의 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운영한다.이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경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을 상향 조정해 개별 공장을 한곳으로 집적화한다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또 가평을 비롯해 양평, 여주, 이천,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가치 낮은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했다.예를 들면 가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서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으로 이전이 가능해진다.앞으로 계획

은 국토교통부가 집행계획 가이드라인을 급년 2월말까지 제시하면 경기도는 3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으로 제4차 수도권경비계획에 근거해 향후 법령,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으로 전지역이 포함된 5개 시군 도의원, 시장군수들이 연대해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등 산 부: 내선 (117)
 판권: 신보문화정보출판사 관 계 부: 내선 (114) 오 리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관광진흥위원회

강북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지역 내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신청 가능...2월 5일까지 접수

강북구가 청년에게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2021 강북 청년도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공모한다. 사업은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능력개발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이번 프로젝트에 총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된 사업별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이뤄진 3명 이상의 모임으로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제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 지역을 기반을 둔 청년문화를 발굴하고 건강한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 여성의 안전·복지·문화 등의 향상을 주제로 한 사업 그 밖에 지역의 각종 공공과제 및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이다. 강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면 된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는 도전정신을 가진 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는 청년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생각

을 행동으로 책 읽는 강북 청년 모임', '청년들의 이불 밖 프로젝트', '건강케어킹 윈데이클래스', '우이사진집'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했다.

조상순/기자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강동구가 기존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구는 장애인의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기존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3종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구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인천시, 삶이 행복해지는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조성한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농업·농촌 체험교육시설로 활용

인천광역시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부지 내에 8억 6천만원을 투자해 100㎡ 규모의 한옥양식 전통문화체험교육관과 전통담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 하반기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은 시민들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의 전통발효식품을 만들어 보고 우리고유의 예절과 세시

풍속을 체험,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농업·농촌 체험교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경문화 유물 전시와 농업역사 사진전, 4-H회와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밴드공연, 난타 등 다양한 전시·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해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힐링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이 도시와 농촌의 가교 역할은 물론 기존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새로운 휴식공간의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관악구, 코로나 시대 주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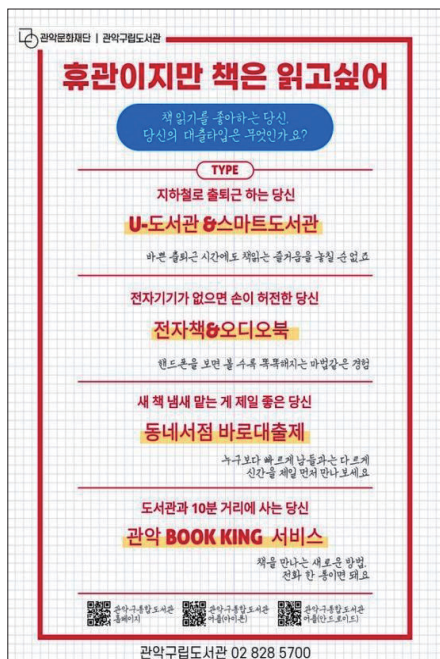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맞춤 서비스...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오디오북·전자책 대출,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등

관악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먼저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로 U-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U-도서관은 서울대입구역을 비롯해 총 5개소에 264개의 적재함을 마련, 예약도서를 무인 대출기로 찾을 수 있으며 반납도 가능하다. 신림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는 422권의 도서가 비치돼 현장에서 원하는 도서를 골라 즉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악구 통합도서관에서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대출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1만 1,000여종의 전자책과 320여종의 오디오북을 소장하고 있어 1인당 5권의 책을 손안에 태블릿PC나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시 접속 인원 제한이 없어 인기 있는 전자책도 예약을 걸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동네서점 바로대출제를 운영, 관내 동네서점에서 신간 도서를 1인당 1회 5권, 한 달 10권의 도서를 빌려볼 수 있다. 월 평균 960여명의 이용자가 1,770여권을 대출하는 등, 지난해 1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2만권 이상의

도서를 활용,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 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고 대출해가는 최소대면예약대출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1인당 5권의 대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독서문화조성을 위해 작년 142개의 마을독서동아리에 비대면 컨설팅을 실시, 소그룹 독서동아리 모임 활성화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활동한 사례들을 자료화해 마을 중심의 독서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자 '책과의 동행, 사람과의 동행' 사례집을 제작했으며 책자에는 비대면 독서모임 운영 매뉴얼, 비대면 독서동아리 활동 사례, 독서모임 문제 해결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외에도 관악구의 의인인 강감찬 장군을 소재로 한 "별빛영웅 강감찬" 그림책을 노인일자리 어르신 참여로 동화구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몸과 마

음이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독서'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이나 주변과의 단절이 심화될수록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나와 이웃을 알아가는 성숙한 독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코로나 블루' 성북구 심리지원센터와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 19 직·간접 영향으로 고통 받고 계신 지역 주민

서울 성북구와 성북구 심리지원센터가 코로나 블루 예방과 극복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북구와 성북구 심리지원센터가 코로나 블루 극복과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성북구는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를 당초 2020년 12월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올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관계자는 "개소 전이고 제대로 홍보할 기회도 없었는데 간판만 보고 문의를 하는 주민이 다수라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시다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했다. 심리지원 참여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 코로나19 확진자 확진 완치자 자가 격리자 및 유가족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응급요원 등 코로나19 관련 종사자이다.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측정, 휴게 공간 제

공, 정신건강정보 및 관련 상담, 아로마테라피, 근육이완·심호흡 훈련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서비스로 연계한다. 이슬로 성북구청장은 "45만이 하

나가 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함으로써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마음 방역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한 만큼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대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자매도시 우수특산물 택배로 만나보세요

금천구, 설맞이 자매도시 농·수 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급식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매도시 농가를 돕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는 금천구의 자매도시인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충남 청양군, 강원 횡성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시중가격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지역별 주요 품목으로는 남해군의 마늘피클, 건멸치, 멸치액젓, 고흥군의 석류진액, 석류플라젠 등 석류제품, 청양군의 구기자차, 우리콩국장, 한과, 횡성군의 더덕, 안홍 찹쌀, 자연건조 황태포 등이 있다. 자매도시별 판매 상품과 가격은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천구

청 지역경제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문 후 지정된 계좌로 구매금액을 이체하면, 1월 27일 이후부터 택배를 통해 순차적으로 상품이 발송된다. 한편 이번 자매도시 온라인 직거래장터에서는 독산3동 자매결연지 철원군 동송읍, 시흥2동 자매결연지 곡성군 삼기면의 농수특산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명절을 맞아 구청 광장에서 개최해오던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열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농가를 위해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평택시립자산초독서관 성인독서모임 '책마실' 신입회원 모집 및 비대면 운영

평택시립자산초독서관에서는 10여년간 운영되어온 성인독서모임 '책마실'의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독서 사랑방 역할을 맡아 온 '책마실' 독서모임에서는 책을 바탕으로 한 독서토론, 문학기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독서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SNS, ZOO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독서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한 달에 한 권 정해진 도서를 읽고 SNS에 자신의 감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에는 미술

관 견학, 명사 초빙강연, 독서토론 등 대

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서울시, 작년 '따릉이' 이용 2,300만 건 돌파... 코로나시대 교통수단 각광

전년 대비 이용 24% 증가, 코로나 대규모 확산 2~4월 따릉이 이용 59.1% 급증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살아야 했던 작년 한 해 서울시민들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여건수는 2,370만5천 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서울시민 1명당 2번 이상 따릉이를 이용한 셈. 특히 코로나19 첫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2~4월 이용이 전년 동기 대비 59.1%나 증가했다.

3월엔 74.4%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회원 수도 크게 늘어 누적 가입자 수가 278만6천 명을 돌파, 서울시민 4명 중 1명꼴로 따릉이 회원이 됐다. 작년 신규 가입자는 역대 가장 많은 120만7천 명이였다. 회원 가입은 대다수가 2030세대로 청년층에서 인기가 높았고 이용빈도는 5060세대가 두각을 나타냈다.

주말보다는 평일에 더 많이 이용하고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이용자 54%가 집중돼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틈새를 잇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역할도 톡톡히 했다. 출근시간대에는 마곡나루역, 여의나루역 등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여하고 여의도 등 업무지구에서 반납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감염병 국면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대면 교통수단인 따릉이를 즐겨 찾으면서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에 맞춰 따릉이를 총 37,500대까지, 대여소는 총 3,040개소까지 확대했다.

전국 지자체 공공자전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용빈도도 높았다.

크기와 무게를 줄인 '새싹따릉이' 2천 대를 도입하고 이용연령도 13세로 낮춰 나이·체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QR형 단말기도 도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따릉이 8천 대를 추가 도입했다. 대여소는 900개소를 추가해 평균 300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했다. 물량 확대와 함께 꾸준한 변신도 거듭했다. 3월엔 QR

형 단말기와 안장높이 조절장치를 원터치 레버방식을 도입했고 하반기엔 프레임도 보강했다. 11월엔 한 고등학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20인 치 '새싹따릉이'를 도입하고 이용연령을 만13세로 낮췄다.

서울시는 따릉이가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시설물인 만큼 철저한 방역·소독에도 나서고 있다. 전체 대여소에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고 손세정제도 2개씩 비치했다. 모든 따릉이는 수거 후 다시 배치하기 전에 손잡이, 단말기 액정화면 등을 친환경 스프레이형 살균제로 철저히 소독한다. 8월~11월에는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통해 총 140명의 '따릉이 방역단'을 구성·운영했다. 대여소, 자전거 등 시설물 표면을 수시로 소독하고 손소독제 잔량 확인 후 교체 등 방역체계를 가동했다. 서울시는 2020년 한 해 따릉이 이용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년 10월 도입된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가까운 대여소를 찾고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다. '20년 1월~12월 총 대여건수는 2,370만5천 건으로 하루 평균 64,946명이 이용했다. '19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누적 회원 수는 278만6천 명을 기록했다. 회원 성비는 남성 51%, 여성 4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월별 증가율이 최대 74.40%까지 치솟은 가운데, 8월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등의 여파로 이용건수가 크게 줄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따릉이 회원 대다수가 2030세대였다. 5060세대는 이용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연간 이용빈도는 2030세대에 비해 더 잦았다. 한 번 따릉이를 경험한 후 꾸준히 이용하는 이른바 충성도 높은 이용자라는 의미다. 시민들이 따릉이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지 살펴볼

기 위해 요일별·시간대별 이용패턴도 분석했다. 주말과 평일 일평균 대여건수는 거의 비슷한 가운데 평일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 주말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따릉이는 평일에는 교통수단으로 주말에는 운동·레저용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는 출·퇴근시간대 이용자가 급증하는 그래프 모양을 나타냈다. 전체 이용자의 53.97%가 이 시간대에 집중됐다.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출근시간대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퇴근시간대에는 6시간 동안 시간당 3천 건 이상이 꾸준히 이용됐다. 따릉이를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를 잇는 '퍼스트-라스트 마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따릉이로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보면 4km 이내, 20분 이내 단거리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출근시간대에는 평균 3.2km, 퇴근시간대에는 평균 5.0km를 이동했다. '퍼스트 마일'은 집에서 나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타기까지 첫 번째 이동 구간, '라스트 마일'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이동구간을 의미한다. 집에서 나와 근처의 버스 정류장·지하철역으로 갈 때나 대중교통에서 하차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근시간대 대여가 많이 이뤄진 데는 대부분 지하철 역사 인근이었고 반납은 여의도 등 업무지구 내에 있는 대여소에서 많이 이뤄졌다. 출근시간에 맞춰 업무지구 주변 역사에서 업무지구로 들어가기 위한 통행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퇴근시간대에는 대여와 반납이 주로 한강 등 전변 인근이나 역사 주변에서 이뤄졌다. 퇴근 후 운동이나 레저를 병행하기 위한 통행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따릉이가 가장 많이 대여된 자치구는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순이

었다. 마곡지구, 여의도, 문정지구 같은 업무지구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 되어있는 자치구라는 공통점이 있어 자전거 도로 같은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따릉이가 계절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도 살펴봤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겨울철 대비 봄부터 가을철에 이용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해 더워보이는 추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영하 10℃ 이하 추운 날씨와 시간당 강수량이 5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 최대 5만 건의 대여가 이뤄지기도 해 날씨와 상관없이 따릉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시민들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생활교통수단으로 따릉이를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직접 확인됐다"며 "올해 3전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올드 리뉴얼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병행해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웃음가득·희망가득, 내손으로 가꾸는 우리 동네 정원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300개소에 8억 지원... 주민제안사업 공모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생활권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시기를 극복하고 이웃과 위안을 나누는 우리 동네 봄맞이정원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일상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2021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2020년 추진한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의 후신으로 시민들이 5인 이상 공동체를 조직, 녹화대상지 선정에서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일상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은 총 2개 분야다.

① 꽃, 나무, 비료 등 최대 200만원 이내 녹화재료 지원과, ②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최소 500만원에

서 최대 1,500만원의 정원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약 8억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령 의무조경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민 뿐 아니라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공동체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신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신규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해 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분야의 경우,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참여 공동체 희망 시 시민정원사 지원을 통해 대상지별 꽃·나무심기 기법, 설계, 식재, 기술지도 지원을 통한 녹화의 질적 향상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해 녹화재료, 보조금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위원회 인력풀에서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2월 1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영녹지과에 메일 전송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윤중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코로나 19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나무 및 식물들은 새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의 지친마음을 위로해줬다"며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서울의 생활공간 뿐 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사업 추진

지역 곳곳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강동문화거리, 천호사전거리, 스포츠 테마거리, 강동형 안심귀갓길 디자인 확산사업 추진



강동구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가지 도시경관사업을 구상해 2021년 본격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성내동 강동문화거리' 경관개선사업이다. 2012년 주민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 만화벽화로 특화된 강동문화거리는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올해 본격 시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 상가 밀집골목 특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동구의 대표 경관거점으로써 대표 특화골목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천호동 자전거거리 특화사업'으로 천호동 자전거거리 특화사업으로 천호동 자전거거리는 이른바 '골목의 길'로 연결되어 있어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높아 자전거 마니아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았던 곳이다.

몇 해 전부터는 자생적으로 자전거 관련 상권이 형성,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에 구는 일반인들도 선호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전국 유일의 자전거 1번지 명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휴게 공간, 자전거 거터대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둔촌시장 먹자골목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강동구 스포츠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다. 이곳은 한국체육대학교와 인접한 지리적 특점으로 대학생들이 자주 찾고 있으며 35년간 체육인과 상인들의 인연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구는 먹자골목에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접목한 테마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거리의 경계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 관련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강동형 안

심귀갓길 디자인 확산사업'으로 후미진 골목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사업이다. 2020년 개발 및 시범 설치가 완료된 강동형 안심귀갓길 디자인 매뉴얼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강동경찰서 지정 16개소 여성안심귀갓길 전체 확산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 천호3동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구전면로를 시작으로 확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는 이러한 도시경관사업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닌 특화가로를 연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이용자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21년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관악구, 유튜브 활용 온라인 통일교육 영상 제작

관악구 곳곳에 숨어있는 강감찬 장군의 흔적을 찾아보며 남북협력의 필요성 안내

관악구가 '개성 만월대에 서린 강감찬 장군의 기상과 통일 염원' 영상을 제작, 강감찬 장군과 연계한 비대면 통일교육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영상은 구의 역사·문화자원인 강감찬 장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려사 연구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제작됐다. 남북역사학자의 대표적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진행한 단계가 제작에 참여해 통일·역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관악구 낙성대에서 태어난 강감찬이 고려를 위해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을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상을 통해 강감찬이 지켜낸 고려의 찬란한 문화와 낙성대·안국사 등 관악구 곳곳에 숨어있는 강감찬

장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의 원류를 밝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개성 만월대 발굴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구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관악'에 영상을 업로드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추후 직원 및 주민교육에 본 영상을 활용할 계획이며 강감찬 전시관 내에서도 상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강감찬 도시 관악'이라는 기치 아래 강감찬 축제, 강감찬 전시관, 강감찬대로 낙성대역, 강감찬10리길투어를 지정·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려사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고려의 명장 강감찬을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의 원류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인천시, 그린파크 사업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

인천광역시시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과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그린파크사업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파크사업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고 조명·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인접주택 사이에도 이웃끼리 서로 동의하는 경우 공동설치가 가능하며 범정부차면 이외 추가설치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최근 5년간 18억여원을 지원해 41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고 올해도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파크사업은 통해 집 앞 주차장이 생기면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어 주차문제도 감소하고 보행로를 확보해 교통사고 발생위험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도 용

이하다. 시는 이처럼 그린파크사업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 및 안전문제 등을 우려해 참여를 망설이는 점을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린파크사업은 주차장 조성 뿐 아니라 CCTV, 개방형 웹캠 등의 방범시설 설치도 지원하며 무단주차 방지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해준다. 시는 또 그린파크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매년 대상지 발굴을 위해 홍보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린파크 1면 설치비용은 650만원까지 지원, 면수를 추가할 경우 100만원씩 증가해 최대 10면까지 설치 가능하며 설치한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차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총공사비의 30%까지 지원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에서는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을 실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소하지만 시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안동시는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자와 대마 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마재배 농가에서 '대마재배허가'를 득하고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해서는 아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엽을 비롯한 대마 씨앗의 껍질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경북도, 대형산불 우려.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 한다

건조·강풍으로 산불 급증, 1월 13건, 산불방지 총력 대응 다짐

경북도는 도내 전역에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올해 1월에만 13건, 14.05ha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들어 8건의 야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강력한 산불감시활동 및 현장 지휘체계를 점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도와 시·군 산림부서장 25여명이 참석해 선제적 산불 예방과 조동진화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영상회의도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이 연중화되고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군 산림부서장 현장 지휘역량 및 대응태세 점검 산림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야간 산불 대비 감시인력 근무시간 연장

운영 가해자 추적 검거 철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금년 산불진화헬기 14대 임차운영 108억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명 선발 172억원, 산불방지지원센터 6개소 건립 24억원, 유관기관 장비지원 등 총 508억원을 투입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광래 경상

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일체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 현장 단속 실시

상주시가 불법폐기물 사전 예방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휴·폐업 공장, 창고와 인적이 드문 휴경지, 임야 등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전수 조사해 우려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을 방지하고자 실시되는 집중점검의 단속 대상은 폐기물 무단투기 우려 지역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 보관·방치의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상주시는 시민들에게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도 홍보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상주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폐기물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고의·상습적인 위반 업소와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관리과장은 "불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남구, 불법 광고물 '신고·허가'로 합법화 유도

양성화 안내문 발송, 자진 정비시 이행강제금 면제

광주 남구는 관내 옥외 광고물 중 구정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 수천여개를 합법적인 광고물로 전환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양성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옥외의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8,83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 현황을 보면 이중 벽면을 이용한 간판이 6,086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돌출간판 2,523개, 지

주를 이용한 간판 145개, 옥상간판 83개 순이었다.

이들 광고물은 관련 법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크기 및 설치 장소 등은 적합하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뒤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 한해 해당 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신고 및

허가에 나설 경우 이행 강제금도 면제할 방침이며 양성화 안내문을 받고서도 자진정거 및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중에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은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추진하고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밀양시, 설맞이 가로·보안등 특별점검 실시

밀양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가로·보안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대로변 가로등 4,725개, 시가지 및 농촌지역 골목길 보안등 10,410개에 대해 점등불량, 소등불량, 불안전 요소, 기타 정비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1월 20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양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민원에 대해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가로·보안등 시설확충

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쾌적한 도시 조성 및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동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 공고기

간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으로 보다 많은 부동산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기를 놓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경기도 어린이집·요양원 이용 음용 지하수 전수검사. 10곳 중 1곳은 '부적합'

'20년에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 시설 전수 수질검사 지속 실시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 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 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천4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용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전수 인건 높은 수도물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이재영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1차 수질검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수불가 및 비음용 전환시설 35개소를 제외하고 186개소를 채수해



검사한 결과, 59개소가 총대장균군 등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을 통해 음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조치했다. 8월에 진행된 2차 수질검사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9개 시설과 1차 검사 당시 채수를 하지 못했던 21개 시설 등 총 80개소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되거나 코로나19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17개소를 제외한 6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시설에

대한 염소소독기 및 살균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3차 수질검사는 2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시설과 1,2차 검사당시 코로나19로 채수를 하지 못했던 7개소 등 총 38개 시설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된 3개소를 제외한 35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최종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소를 살펴보면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에서 질산

성질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정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조치중인 12곳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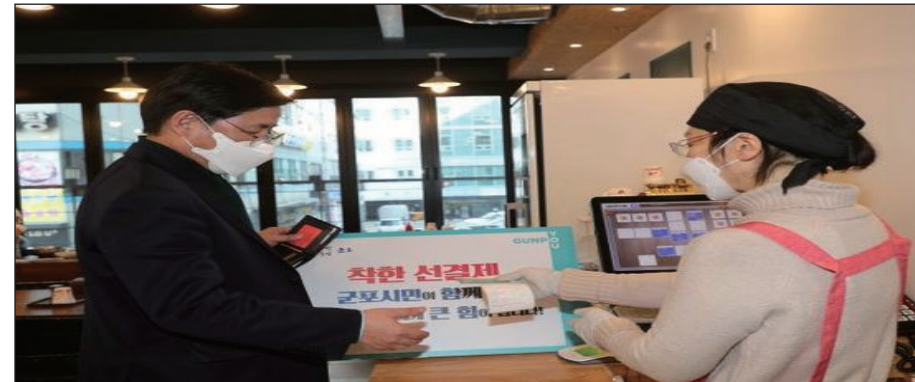
한대희 군포시장, 소상공인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산본로데오거리 식당 방문해 직접 선결제하기도

한대희 군포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요청했다. 성북읍 군포시의회의장으로부터 한대희 시장이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정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조치중인 12곳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 사장과 한우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재수 군포산업진흥원장을 지명했다. 한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직사회가 선결제 운동에 우선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군포시는 오는 3월 예산 소진 시까지 선결제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시자원봉사센터는 2월 28일까지를 '군포시민행동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선결제 운동의 필요성 등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성남시 성평등문화조성사업 공모...최대 10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비영리단체·법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선정되면 오는 4~12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1억원이다. 공모는 자유, 지정 등 2가지로 구분해 5개 사업 분야를 지원한다.

자유 공모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성평등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찾는다. 지정 공모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고용중단 예방,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사업 등이 해당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 여성 관

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다.

성남지역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진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공모할 수 없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독창성, 수행 능력 등을 심의해 오는 4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는 지난해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 양성평등을 말하는 청년인형극 티키타카', 성남여성회의 '엄마들의 젠더 스킵 성평등 그림책 놀이 강사 양성' 등 12개 사업을 선정해 7877만원을 지원했다.

이성윤기자

2021년 성남시 성평등 문화조성사업 공모

접수기간: 2021. 1. 25. (월) ~ 2. 5. (금)

접수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접수(평일 업무시간 09:00~18:00)

신청서류: 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성평등 문화조성사업 공모 공고문』 참조

지원금액: 사업추진 단계별 최대 1,000만원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모내용: 양성평등 확산사업 등 5개 분야 중 1개 분야 지원가능

지원사업: 자유공모 4개 분야, 지정공모 1개 분야

1. 양성평등 확산(여성친화 도시조성)

- 성인지 정책(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확장 교육
- 양성평등 인식확장 홍보물 제작(포스터, 교재, 영상물)
- 지역사회 성인지 정책 확산 지원
- 지역 기반 양성평등활동 지원 및 확산
- 일상생활(영양, 골목 등)속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사업

2. 가족관계 증진

- 가족애착 예방 및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증진
- 한부모, 이혼요,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
-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 가치 확산
- 자율산 해를 위한 의사개선 및 정책홍보 사업

3. 기타 성평등 정책 관련

- 성평등 지수가 낮은 분야에 사업을 우선 추진
- 성평등 사회문화 정책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분야
- 여성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여성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등을 강화 시키는 프로그램

4. 워드코로나 등 사회적 변화 대응 및 반영

-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 실정되는 다양한 문화체육 대응 방안
- 성별영향평가, 고용중단 예방,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적용사례 사업

오산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진로진학세미나' 개최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오는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고등학교 입학준비를 준비하는 예비고1을 비롯해 2021년 고2, 고3이 될 관내 학생과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진로진학세미나'를 진행한다.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는 학령기에 있는 관내 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학습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진로진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온라인 진로진학세미나는 덕성여대와 공동주관으로 관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 오산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며 코로나 상황에서의 임시전락을 주제로 분야별로 알아보는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남주기자

오산시 & 덕성여자대학교 | 오산시 & 덕성여자대학교 |

학생·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진로진학세미나

일시: 2021.01.22(화) 15:00~17:00

대상: 예비고1(고2) ~ 22학년도 학생

연말: 선착순 200명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임시전락 4개 분야(진학, 진로, 고2, 고3)에 대한 전문가 특강 (5시간 20분간 스트리밍)

장소: 온라인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신청링크: <http://naver.me/GoutMqj8>

문의처: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 오산시청 10층 | 031-8036-6966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직한 영양군의회

태백산맥전적탐, 고추밭리기, 반딧불이현문대, 은항나무, 시냇길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

20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를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이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전 그룹사가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되며 4조 5,7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적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펄물,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됐으며 사업 작성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명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방향의 주요 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미래세대를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갖고 있는 만큼 VR/AR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2021년 시민과의 대화' 실시

다음달까지 35개 읍면동 민원 현장 방문 및 주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

백군기 용인시장이 20일 풍덕천2동을 시작으로 '2021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매년 새해 시정 방향 및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풍덕천2동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관내 35개 읍면동의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시민과의 대화'로 각 지역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방문에 앞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들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해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영기 풍덕천2동장과 풍덕천2동 통장협의회 관계자 32명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백 시장과 자유롭게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항상 시정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는 통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새해에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경기도, 2023년까지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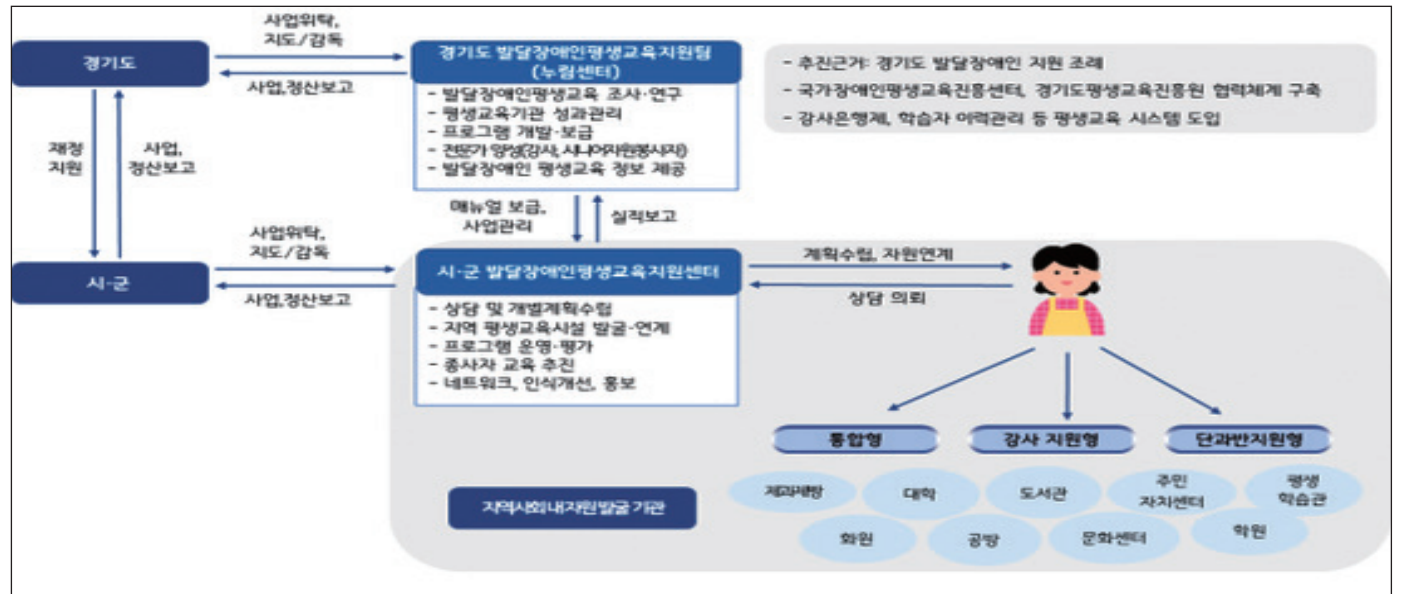
3월까지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도가 설립을 계획 중인 교육지원기관이다. 도는 센터 설립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3월까지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6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5만4천여명이 발달장애

인들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조사·연구, 시·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성과 관리, 전문가 양성,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육구조사

를 실시하고 정책협의회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뒀.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체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3개 시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 복지방역분과 2021년 첫 회의 개최

하남시, 19일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방역분과 올해 첫 회의 개최

하남시는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복지방역분과 2021년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개선사항을 공유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지난 19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민복기 복지방역분과 위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함께 했다. 위원들은 고위험시설 등 방역 상황 및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사업 등 각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 고위험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시 분야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대응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초 지역 내 요양원 종사

자가 양성 관정을 받았으나,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해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은 바 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복지 종사자 대상 유연한 코로나 검사 진행 집단 감염 대비 민관 공동대응 매뉴얼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날 민복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분야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민·

관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호 시장은 "백신 보급에 앞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한 백신 접종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함께 보건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경북교육청, 소방시설 법령개정에 따른 교육시설 점검

학교 지하구 소방시설 강화

경북교육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년12.10.]에 따라 소방관련 교육시설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력·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강화로 교육시설을 점검해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지하공동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준용 대상지하구를 파악한다.

학교별로 현장조사 후 유예 기간인 오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통합감시시설 등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른 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지하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과 같은 간접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소방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

비하고 지하층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수시설, 급배수배관, 전기시설의 노후도 등을 함께 조사해 건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시설, 통합감시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이 추가됐다.박태경 시설과장은 "이번 개정된 소방시설에 대비해 모든 학교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완료하고 지하층의 각종 노후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경주시 도로망 더욱 촘촘해진다"...'경주IC~터미널' 잇는 '강변로' 올 하반기 개통

경주IC~터미널 간 강변로 오는 11월 개통. 공기 7개월 앞당기면서 교통 분산 효과 '기대'

경주IC와 터미널을 곧바로 잇는 강변로가 올 하반기 조기 개통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금성 삼거리'나 '황남주민센터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경주IC에서 터미널로 곧바로 오갈 수 있어, 교통 분산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주시는 이번 신규 도로 개통으로 경주IC와 터미널 간 소요시간이 주말 혼잡 시간 기준 최대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IC 진출 후 첫 번째 교량인 '나경교'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신라초등학교 앞 '첨성로'를 연결하는 강변로 2.24km 구간이 오는 10월 말 개통한다.당초 이 구간은 오는 2022년 4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성토와 하부구조물 설치 등 전체 작업공이 7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준공을 7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앞서 개통된 천북교차로~신라초등학교 7.76km 구간의 연결 구간으로 지난 2018년 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 등이 마무리됐고 이듬해인 2019년 1월 이 구간 중 유일한 교량인 황남대교 완공을 거쳐 같은 해 4월 남은 공사에 들어간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IC~터미

널을 연결하는 강변로의 조기 개통으로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대구시, 안전 도시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안전 4대 부분에 193억원 투입

대구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4대 부분에 193억을 투입한다.교통안전 개선사업은 2002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4대 부분에 대해 행안부와 대구시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교부하고 해당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대구 시내 767개소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44억원을 들여 구구 명덕초교, 서구 서도초등학교 등 33개소에 과속방지턱, 안전웬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4억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를 확대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응하고자 노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억원을 들여 동구 월전경로당, 수성구 수성4가 경로당 등 3개소에 시행한다.

◆넷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달서구 용산동 용산근시장 및 수성구 수성동 1가 일원에 도막 포장, 고원식 교차로 등 차량속도

남궁영기기자

'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개발사업 본격화

지난해 12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울산시는 '울산 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21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울산시가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케이티엑스 역세권 배후에 구역면적 153만㎡, 수용인구 약 1만 1,000세대의 산업, 연구, 교육, 주거기능이 융합된 스마트자족신도시를 건설하는 울산형 뉴딜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3섹터인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도시개발이 오는 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과반이상 지분을 가진 공공출자자인 울주군과 도시공사가 실제 계획, 토지공급,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복합특화단지의 개발계획에는 마이스산업, 도시첨단산업 R&D, 스마트 주거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약 28%를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미래 성장 동력



이 될 특화산업용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의 약 60% 수준으로 공급하고 연구개발, 에너지, 미래차, 바이오계능을 주축으로 한 생명공학 등 신 성장산업 관련기관과 기업유치에 나설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제2전시기벤션센터 건립,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산업과 수소 등 에너

지산업 육성, 교육·문화가 어우러진 테마형 공원을 중심으로 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등이 개발계획에 반영됐다"며 "인근의 경제자유구역,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해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 등 5개 시도가 추진 중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을 한 눈에 쏙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 홍보 탁상형 달력 제작·보급

경북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에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을 담은 홍보 달력을 탁상형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제작한 정책 홍보 달력은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을 늘 가까이 두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초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 홍보 달력'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로 꼭 알아야 할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 12가지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월에 안내했다.또한 관련 규정과 핵심 내용을 함께 명시해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별도의 공문 검색 없이 해당 정책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1월은 교사수준 교육과정, 2월은 경북형 원격수업, 3월은 놀이수업 학기제, 4월은 한글책임교육, 5월은 1-1-1 프로젝트 학습, 6월은 기초학력, 7월은 인성교육, 8월은 놀이



중심 공간 재구조화, 9월은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10월은 학생 참여형 수업전문가, 11월은 교원학습공동체, 12월은 과정 중심 평가를 담았다.

경북교육청은 웹툰, 클립 영상, 교육과정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등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이양근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선생님들이 초등 교육과정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히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포항시청소년재단 2021년'겨울방학 ON-Line 드림클래스'수강생 모집

2월 1일부터 '겨울방학 ON-Line 드림클래스' 무료강좌 운영

포항시청소년재단은 2021년 코로나 19 시대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좀 더 알차고 흥미롭게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겨울방학 ON-Line 드림클래스'를 무료로 운영한다.개설 강좌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세계문화를 탐구하는 [세계문화탐험],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높여주는 [창의적인 글쓰기], 책을 읽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생각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서미술], 화술·발표력·자신감 및 창의성을 길러주는 [토론&스피치], 그림적으로 배우는 재미 있는 [영어동화] 총 5개로 운영된다.특히 이번에 개설되는 ON-LINE 강좌는 OFF라인 수업과 견주어 온라인 수업으로도 효과가 반감되지 않는 과목들로 엄선했으며 모집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0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으로 누구나 포항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포항시청소년재단 운영관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방학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ON-LINE 강좌가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수강료 무료(온라인수업)

2021 On-Line드림클래스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01. 25(목)09:00-01. 26(목)18:00 · 운영기간 : 02.01(월)-02.26(금)

· 신청방법 : 포항시청소년재단(www.phyf.or.kr) > 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 수강신청/방학특강ON-Line-드림클래스 > 희망강좌 신청(수업 후 당일자민 온라인 등록 가능)

· 문의 : 240-9131-4 (방문접수불가)

| 강좌명 | 강좌내용 | 요일 및 시간 | 대상 |
|----------|--|-----------------|-------------|
| 세계문화탐험 | 스토리텔링 세계사 | 월요일 16:00-18:00 | 초5-초2 (20명) |
| 창의적인 글쓰기 |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공부법 | 화요일 16:00-18:00 | |
| 영어동화 | 그림책으로 배우는 영어동화 | 수요일 16:00-18:00 | |
| 독서미술 | 스토리텔링 동화책을 읽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생각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의 미술수업 | 목요일 14:30-16:30 | 초3-초6 (20명) |
| 토론&스피치 | 발음, 발성, 어휘력, 이야기 구성능력 향상을 통해 화술, 발표력, 자신감 및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 금요일 16:00-18:00 | |

포항시청소년재단-청소년수련관

김기현기자

경남도립미술관, 2021년 연간전시 계획 공개

예술로 함께 도약하는 도립미술관 주요 전시 소개

경상남도립미술관이 예술로 함께 도약하는 도립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연간전시 계획을 공개했다.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각 전시별 vr영상 제공,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아모아 프로젝트', '기억채집 프로젝트', '과일여행 프로젝트'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틱톡 라이브 '온라인으로 떠나는 미술관 나들이 with 숲꿈'은 시청자수 8,000명을 기록했다.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기획과 온라인 미술 콘텐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 민화'는 19세기 말 시대적 대전환기에 탄생한 '민화'의 세계를 탐색하고 현대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기획전시다.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담고 있는 민화 가운데 '이상향'이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독창적인 언어로 재해석해 본다.'동시대 미술 동향전'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선보이며 다양한 양상의 시각예술문화를 경남에 소개한다.미술과 사회의 관계 연구를 바탕으로 미술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융합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트렌드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신소장품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새롭게 소장한 경남의 근현대 작품들 가운데 자연, 인간, 사회라는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한 작품들을 선별해 전시한다.이 전시를 통해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현황과 정책성과를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경남 예술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티스트 2021'은 경남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전시로 2017년부터 격년제로 시작되어 이번이 3회이다.창조적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며 실험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루킨, 엄정원, 이성룡, 최승준 작가가 선정되어 3월 4일부터 전시를 시작한다.'지역작가조명: 양달석' 전시는 경남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의 기억과 현실의 아픔 등을 작품으로 표현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양달석 작가의 미술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기린다. '도큐멘타 경남 ii'는 1970-80년대 경남 지역 미술계를 살펴보고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미술의 생산과 유통의 구조를 자료와 미술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기록 전시이다.이미 도립미술관은 2019년에 '도큐멘타 경남 i-기록을 기억하다'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의 집결지였던 창원읍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의 근대화과정을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해 도립미술관은 전시 이외에도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학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기존의 비대면 프로그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적 경험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미술사 정립을 위한 소장품 수집과 작품의 관리 및 보존 전승을 위한 소장품 연구에도 박차를 가한다.이를 통해 경남미술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체계를 잡아나가고 지역의 원로미술인, 지역학 연구사의 구술녹취 및 영상기록을 시작으로 점차 미술사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경남도, '21년 가야사 연구·복원 미리보기

도민 체감 위한 실감콘텐츠 구축 및 비대면 발굴현장 공개 확대

경상남도는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와 경남도가 주축이 되고 가야문화권 지자체가 협력해 수립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가야사 조사연구, 복원 정비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과 전망을 내놓았다.특히 올해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야문화권에 특화된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가야문화의 이해와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집중한다.

김경수 지사는 가야사 복원을 위해 최우선해야 하는 것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가야사의 가치규명'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가야사 조사연구 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역사적 가치규명이 시급히 필요한 '비지정 가야유적'의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도비 6억원을 편성해 10개 시군, 10개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 등을 지원한다.올해 지원 유적은 진주 유곡동 죽전유물산포지, 사천 사물국 유적, 김해 주동리 체철유적, 함안 신산고분군, 창원 고대 비지정고분군, 고성 용산리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함양 척지도성, 거창 말흘리고분군, 함천 소오리고분군이다.

'비지정 가야유적' 조사연구 지원사업은 2019년 처음 시작해 올해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또한, 중요 가야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도비 2억원을 편성해 4개 시군, 4개 유적의 학술조사가 진행된다.학술조사 대상은 김해 칠산동고분군, 창원 영산고분군, 함양 백천리고분군, 거창 무릉리고분군이다.여기에 국가 및 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시군의 자



체적인 노력도 더해져 올해 총 35건의 학술조사가 추진 또는 예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까지 더하면 4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경남도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주요 가야유적에 대한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9년 481억원, 2020년 425억원 2021년 403억원 등 3년 연속 400억원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를 통해 '핵심관리유적 정비사업'인 김해 가야사 2단계사업과 금관가야 왕궁터 정비사업,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 창원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정비사업, 고성 송학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정비사업이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학술조사, 복원정비 등 단계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또한 '중점관리유적 정비사업'은 비지정 유적으로는 유례없이 발견 1년 반 만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함안 가야리유적과 세계유산 등재추진 중인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천 옥전고분군의 정비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야역사자산의 가치를

되찾아갈 전망이다. 경남도는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와 발굴성과의 발 빠른 공유를 위해 주민들이 발굴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공개행사를 해 왔다.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시도됐으며 올해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현장공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지난해 수립된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의 핵심전략 과제인 가야문화권 국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구축을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중인 시군 국립박물관을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가야사를 콘텐츠로 한 다양한 활용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노영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남의 정체성이 가야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균형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가야사 복원의 모든 과정을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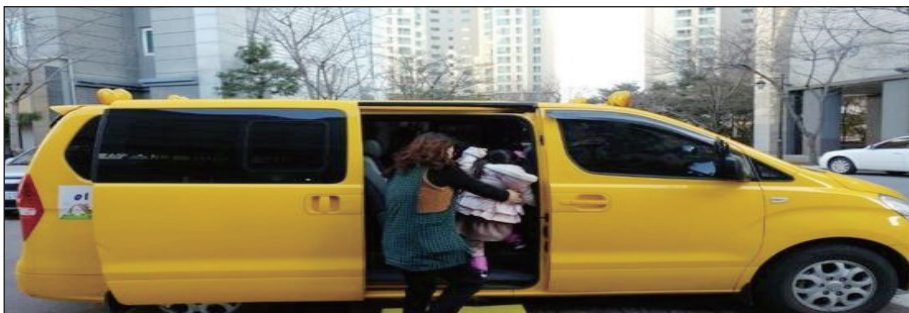
37대 지원,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진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올해는 37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특히 올해에는 특별조항이 신설되어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로 문의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나 많이 배출되어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창원시, 산업단지 내 치유·휴식공간 지능형 실내 정원 조성

2020년 17개소 설치 완료, 2021년도 15개소 신청 접수 중

창원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능형 실내 정원 설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지능형 실내 정원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정원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고자 추진된 산림청의 신규 사업으로 정원을 가꿀 수 없는 제한된 실내공간을 활용해 이용자가 치유·휴식·관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2020년 시범사업

으로 1개소당 3000만원을 들여 창원국가산업단지 12개소, 진북산업단지 2개소, 중리공단 1개소, 마천공단 2개소 등 총 17개소에 지능형 실내 정원조성을 완료했다.올해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내 총 15개소에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에서 신청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시는 2021년도 신청 대상지 모집을 위해 관내 모든 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대상지로 선정

되면 1기업체 당 1개소의 지능형 실내 정원을 설치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현민 산림휴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실내정원이라 하여 앞으로 힐링 실내정원을 즐길 수 있는 실내공간 인프라가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2020년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본격 운영으로 성과 이뤄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537억원 확보에 '혁혁한 공'

전남 구례군은 2020년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본격적 운영한 1년 성과를 정리하고 분석해 알찬 도시재생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 4월에 개소해 비상근체제로 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부터 전문가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2명을 구성해 상근체제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도시재생에비사업 공모사업

의 접수리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협력체계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각종 교육 홍보와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제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마을활동가 환경치유사를 운영해 야생화골목길 꽃 치유 및 환경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지속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컨설팅 및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도시재생 접수리 지원사업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녹색 사랑방으로 개방해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의 활발한 운영과 각종 언론보도로 인지도를 높이고 특히 부처꽃 종자 100를 전국 472명에 무료 나눔 행사를 추

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와 위상을 제고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0년도는 코로나 19 유행과 여름철 수해피해로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해였다"며 "2021년에는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전국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진도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이며 사전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진도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으로 진도군의 유료 관광지 방문과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고 숙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내국인 기준으로 1인당 당일은 5,000원 1박 12,000원 2박 이상은 2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회 지원 한도액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수학 여행단은 학

교에 지급한다. 진도군의 유료 관광지는 진도타워, 윤림산방, 해양생태관, 소전미술관 등이 있으며 올해 9월 1일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진도군 전시관도 2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료 관광지에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진도군 홈페이지 '2021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또는 진도군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시설 방역,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청정 관광 진도군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고흥사랑상품권 카드형 신규 발행

10% 특별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고흥군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충전식 체크카드인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의 불편 해소를 통한 유통확대와 부정유통 방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카드형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연회비 없이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고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관내 농·축협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권면금액의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카

드 이용 시 30%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고흥사랑카드의 카드기가 설치된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상품권 chak' 앱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드 사용 시 상품권 충전액이 우선 소진되며 충전금액 초과나 비가맹점, 후불교통카드,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서 결제가 된다. 군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충전수단을 제공해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상품권 이용과 착한소비 활동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장흥군, 지역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한 관산-회진 관리수면 지정

장흥군은 지난 19일 전라남도로부터 관산 삼산지선 81ha를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산마을의 4개 어촌계에서 잡수기와 횡망어선을 이용해 새조개 189톤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관리 수면 지정은 지난 7월에 지정된 회진 신산지선 119ha와 함께 장흥군 어촌계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장흥군은 관산을 회진면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을 위해 장흥군수 주재로 6개 어촌계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며 어촌계 의견 수렴과 잡수기·해녀 등 각종 분쟁을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임성수 장흥군수가 전라남도 현장 조사 당시 직접 방문해 신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관리 수면 지정을 통해 새조개라는 한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어촌계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 채취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지역 어민과 어촌계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1004섬 신안, 갯벌에 핀 새하얀 눈꽃

자연이 선물한 한 폭의 수목화

전국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내렸다. 신안군도 지난 대설·한파로 누적 적설량 평균 32.2cm, 최저기온 영하 12.8℃를 기록한 가운데 신안군 갯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비경이 펼쳐졌다.

갯벌은 염분과 밀물, 썰물로 인해 눈이 쌓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고 특히 신안군과 같은 섬지역은 평균기온이 10℃가 넘는 달이 1년중 8개월이상인 아열대기후에서는 더욱이 보기 힘든 풍경이다. 그러나, 영하 10℃를 넘어가는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신안군의 갯벌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신안군의 넓은 갯벌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갯벌의 작은 수로들과 어우러져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다양한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목화를 연상케 했다. 한편 신안군 갯벌이 포함된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2021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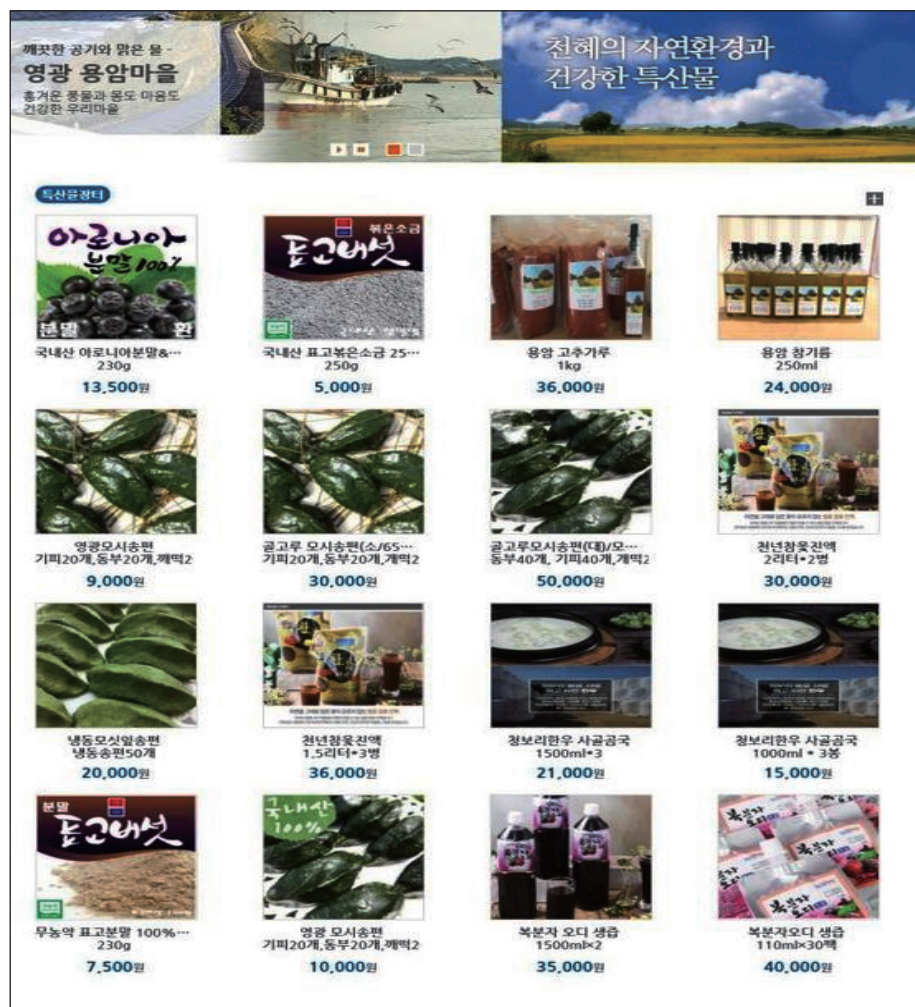
조기석/기자

영광군, 정보화마을 설맞이 비대면 특판 행사 개최

설맞이 지역 특산물 최대 35% 할인 판매

영광군 정보화마을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인터넷 특산물 판매 행사를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개최한다. 범성굴비마을은 영광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명성이 높은 '굴비 상품'을 53,000원부터 348,000원 가격대로 다양하게 준비해 특가로 판매한다. 군남용암마을은 농식품부가 인증한 1등급 생태환경 마을로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 '4색 떡국떡', '모시잎 송편', '태양초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상품은 굴비정보화마을 인터넷사이트 <http://gulbi.invil.org> 또는 전화 061-356-4013 용암정보화마을 인터넷사이트 <http://yongam.invil.org> 또는 전화 061-351-0878로 주문하면 된다. 아울러 영광군 정보화마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비대면 특산물 전시 행사'를 실시하며 전시행사는 26일 오후 2시~오후 4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방송'에서도 현장 중계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특판 행사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올해 설 선물은 영광 정보화마을에서 풍성하고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순천시, 2021년 제6기 청춘여행길잡이 모집

순천 여행을 널리 알리고 싶은 순천시 청년들 모여라

순천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순천의 관광자원 안내 및 홍보,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2021년 제6기 청춘여행길잡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청춘여행길잡이는 지난 2016년 처음 출범한 이후 5년간 내일라·청춘여행객 안내, SNS운영 및 홍보, 자원봉사, 청춘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각종 박람회 참여 등 순천시 청춘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관광안내소 근무 및 관광홍보·마케팅 활동 등 월 20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하며 순천관광에 관심이 있는 순천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15명 내외의 합격자를 2월 3일 발표하고 2월 중 기본교육을 마친 후 청춘여행길잡이로 위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활동한 청년해설사들의 역할이 순천관광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질 관광트렌드에 맞게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남원시, 취약계층 목돈마련 프로젝트 추진

희망키움 I·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I·청년저축계좌 모집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자산형성 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은 19명, 내일키움통장 1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43명, 청년저축계좌 22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키움통장 I·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은 2.1~2.18까지, 희망키움통장 II, 청년저축계좌는 2.1~2.19 1차 모집을 실시한다.

희망키움통장 I·희망키움통장 II·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I은 근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139천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 가능하다.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비해 매월 최대 646,000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7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이 가입 가능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할 경우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 이내 취·창업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3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 자활지원담당자는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광주 가전 공동브랜드 이름 '지엘' 선정

각종 홍보 및 마케팅 적극 활용 계획...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

광주광역시 지역 가전 공동브랜드의 이름을 '지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엘'은 '광주+Intelligent+Electronics'의 조합으로 '광주가 생산하는 지능형 가전브랜드', '광주가 보증하는 스마트가전'을 의미한다. '광주'와 'Good'의 G를 모티브로 만든 디자인 심벌 G는 좋은 가전을 만드는 광주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현재 사용 중인 공동브랜드 이름 'CITY OF PEACE'는 슬로 건형 이름으로 연상과 기억이 다소 불편해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공동브랜드로 등록할 수 있는 제품군이 단 두 가지라는 한계가 있어 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명을 추진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빛·가전·광주의 이미지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누구나 부르기 쉬운 이름 등을 고려해 브랜드 네이밍 후보군을 개발했고 전국민 대상 공모전을 실시해 응모된 500여 개의 후보군 중 10개를 선정했다. 개발된 후보군에 대해 20~50

대 이상 시민, 디자인과 학생, 사용기업을 대상으로 총 3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엘'을 브랜드 이름으로 최종 확정했다. 현재 광주시는 지엘 상표 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활용 매뉴얼을 정비해 지엘을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가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교과, 맞춤형

마케팅, 해외수출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참여기업은 ㈜인아의 해동래인지, 디케이㈜의 공기청정기 등 24개사 39개 제품으로 광주 가전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순경중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광주 가전 공동브랜드 지엘의 가치를 높이고 광주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명품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완주군의회,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극복,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사간 상생협력 주문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은 지난 20일 완주군수와 함께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 노·사 양측과의 면담을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공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 설립, 우리나라 상용차산업 전진기지로서 전북지역 제조업계를 지탱하며 전북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에 이어 코로나19 파동까지 맞물려 전주공장 가동률이 급감하자, 지역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재천 의장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지역 공장 폐쇄 등에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상권위축, 인구유출, 고용불안 등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어 의회에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면담과정에서 전주공장 노조는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투자, 신차배정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전환경차 등의 사



업성을 고려한 투자를 계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완주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처럼 현대차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제조업 기반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만큼, 상용차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군, 전북도, 지역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의회차원의 적극

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재천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긴장감 해소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대차 노·사간 소통 합의를 통한 상생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가 오는 1월 28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민간단체 등이 새만금 유역 생태계 보전 및 교육과 홍보 등 수질보전활동을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수질보전활동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모 대상은 물길탐사 및 생태조사, 수질보전활동, 교육·홍보이다. 세부적으로 생태길 걷기 및 탐사와 수생태계 보전활동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활동 이동교실 및 학교동아리 등 새만금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공모사업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공모사



업에 선정되면 단체별로 1~2천만원을 지원받아 올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된 공모계획을 참고해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청 새만

금수질개선과로 접수하면 된다. 강신교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전국 최초 에너지 전자화폐, 올해 3612가구에 첫 지급

전국 최초 에너지 전자화폐 소양에너지페이 오는 1월 29일 첫 지급

전국 최초 에너지 전자화폐인 소양에너지페이가 올해 첫 지급된다. 소양에너지페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발전설비를 설치,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시정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최초 지급대상자는 총 3,612가구로 지급 규모는 2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시정부에서 운영하고 있

는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판매 수익금을 활용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액 자부담 설치자 2,624가구, 주택지원 보급사업 설치자 177가구, 융복합지원 보급사업 설치자 42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치자 391가구다. 이들은 주택용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며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체결한 사람이다. 최초 지급일은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오는 1월 29

일 217가구에 대해 소양에너지페이가 최초로 지급된다. 이후 4년간 연간 1회씩 매년 3월에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간이다. 소양에너지페이는 지급이후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모바일 전용 앱으로 지급된다.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할 후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해 스캔 결제를 하면 된다. 양에너지페이가 가맹점은 오는 1월말까지 약 600개 모집을 시작으로 최대 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부는 지급대

상자를 현재 주택용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열원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정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소양에너지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곧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청양군, 보훈가족 수당인상 등 예우 강화

청양군이 보훈수당 인상, 현충시설 환경개선 등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에 나섰다. 군은 올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6월부터 월 3만원, 배우자에게 월 2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을 1600만원 증액했고 2000만원을 들여 3·1만세운동 기록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내 현충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남양면 소재 한훈 선성 사적지 4000만원, 장평면 소재 이세영 유려비 5000만원, 청양읍 소재 충령사 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다른 현충시설 주변도 정비

한다. 군은 지난해에도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6·25 참전유공자 등 11개 보훈단체 800여 생존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2만 5000원을 각각 인상 지급했다. 또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화성면 소재 청대사 정비에 5000만원을 투입했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이 닦았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한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만식기자

공주시, 설맞이 고맛나루장터 할인이벤트 ‘최대 38%’

기획 상품 및 93개 품목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20개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명절을 맞아 고맛나루 건강미세트를 비롯해 배와 사과, 밤 세트 등 총 4가지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고맛나루쌀과 햇밤, 계룡백일주 등 공주시 특산물 및 밤 가공식품, 반찬류 등 93개 품목을 최대 38%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는 이벤트 기간 구매 회원에게 결제금액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고맛나루장터 쿠폰을 제공한다. 구매방법은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에서 주문하거나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기획세트 및 명절 선물세트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시청 신바람북카페에서 전시된다.

고정화기자

부여군보건소,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부여군보건소는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한파가 이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한랭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하고 있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관내 건강대부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한랭 질환자에 대한 일일 보고를 활용해 관련요인 및 특성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군민에게 한파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인 겨울철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9~20월기 한랭질환자 감시결과'의 세부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중 48.2% 차지하며 발생시간은 새벽·아침이 43.9%로 많았다. 특히 노약자는 체온 유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외뿐 아니라 난방이 적절하지 않는 실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어린이 등에 대해 이웃·가족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천호지, 여가·문화 가득한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설계 공모 방식 도입으로 질 높은 다양한 설계안 기대

천안시 안서동에 위치한 천호지가 수변경관 개선으로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이 어우러진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천안시는 천호지를 남너노소 시민 누구나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탈바꿈하기 위해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중 설계공모 공모에 나서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특색 있는 콘텐츠, 수준 높은 설계안을 발굴해 공원녹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한다. 시는 전국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업체 중 공모안 평가를 통해 1등 업체에 설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시공원법상 공원이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천호지’는 2008년 체육시설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돼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가변성 없는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돼 시민을 위한 문화공



원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수변공원이 가진 자연환경을 이용한 경관요소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시는 인구증가와 급변하는 도시화에 대응함은 물론 신규 공원조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존 천호지의 자연여건을 활용한 수변경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천호지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

영, 지역·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 정년문화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사업은 천안에서 주변 자연경관을 이용한 수변경관 개선사업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천호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서천군 과수 동해피해 조기판별 기술지원 추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 동해 조기판별로 피해 최소화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15°C이하의 강추위로 과수 동해피해가 우려되어 과수 동해 조기판별을 위한 간이 검정을 실시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과, 복숭아를 대상으로 가지를 채취해 약 5일 동안 수삼한 후 눈과 가지를 절개해 동해피해를 검정한 결과 대부분의 과원에서 피해가 없었으나 일부 과원에서 동해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상 과수는 저장양분이 줄면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는데 지난해 7~8월의 지속적인 장마로 인한 일조부족에 의해 과수의 저장양분은 평년보다 10%가량 줄어들었으며 꽃눈 분화도 1~8%가량 줄어든 생육상태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영양상태가 양호한 가지는 동해피해가 거의 없었



나 저장 양분이 부족한 약한 가지에서는 끝눈과 줄기가 동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진관 원예특작기술팀장은 “올해는 꽃눈 분화율이 낮은 가운데 동해 피해까지 발생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동해피해가 발생된 과원에서는 전정시기 및 전정량을 조절해 꽃눈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화곤충·인공수분 등을 통해 결실량을 확보해 주어

야 하며 원줄기나 열매가지에 동해피해가 클 경우에는 결실량과 시비량을 적절히 조절해 수세회복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수 동해피해 조기판별 기술지원이 필요한 과수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검정을 의뢰하면 현지 출장 후 시료 채취해 5일 후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최만식기자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지혜학교 수강생 자서전 ‘눈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하고 인생 2막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서전 쓰기 수업이 눈길을 끈다. 춘천시립도서관은 은퇴나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도서관 지혜학교가 최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삶을 기록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을 통해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2020년 8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수강생 10명은

함박희 글쓰기 지도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인의 삶을 기록해 나갔다. 수강생들은 도서관 지혜학교에서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지혜학교에 참여해 ‘아침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쓴 조진연씨는 “자서전을 쓰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게 됐다”며 “저 개인에게, 이런 경험은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커다란 감동이었다고 자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설계할 수 있

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자기반복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집필한 오주희 씨는 “자서전 쓰기 수업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저는 이 문을 열고 비상한다. 더 멀리 날아 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준복 시립도서관장은 “지난 3달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정을 완주하고 자서전을 출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완성된 근사한 자서전은 큰 기념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큰 선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전국 최초 에너지 전자화폐, 올해 3612가구에 첫 지급

태양광 보급사업 설치자 391가구다. 이들은 주택용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및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체결한 사람이다. 최초 지급일은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오는 1월 29일 217가구에 대해 소양에너지페이가 최초로 지급된다. 이후 4년간 연간 1회씩 매년 3월에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간이다. 소양에너지페이가 지금은 에너지 화폐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모바일 전용 앱으로 지급된다.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가 가맹점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할 후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해 스캔 결제를

하면 된다. 양에너지페이가 가맹점은 오는 1월말까지 약 600개 모집을 시작으로 최대 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부는 지급대상자를 현재 주택용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열원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정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소양에너지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곧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 코로나19 방역물품 쾌척

비상식량세트 등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도내 자가격리자를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충남도에 쾌척했다.도는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한규남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 총재, 유창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지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국제라이온스협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비종교 국제봉사단체로 지역과 세계에 대한 헌신과 인도적 봉사활동을 단체목적으로 한다.

계룡, 금산 의 충남·세종을 관할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는 취약계층 배내장수술비 지원사업,

다문화 및 조손가정 지원사업, 김장·이불나눔 봉사 등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다.지난 '20년 7월 취임한 한규남 총재는 취임인사 및 신년인사와 함께,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기원한다고 기부소회를 전했다.이번 지원물품은 비상식량세트 및 마스크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뜻깊은 성원을 보내주어 도내 자가격리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부 활동을 실천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 지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정화기자



무안군 "이agai, 이현준 남매" 승달장학금 215만원 기부

무안군은 지난 19일 이agai, 이현준 남매가 무안군승달장학회에 장학금 215만 3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agai 학생의 장학금 기부는 2016년부터 시작했으며 이후 동생 이태이, 이현준 학생이 함께 참여해 매년 1~2차례씩 용돈을 모아 장학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지금까지 삼남매가 승달장학회에 기부한 장학금은 총 865만 3000원에 이르며 올해는 이agai, 이현준 학생이 장학금을 기부했다.김산 군수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도 많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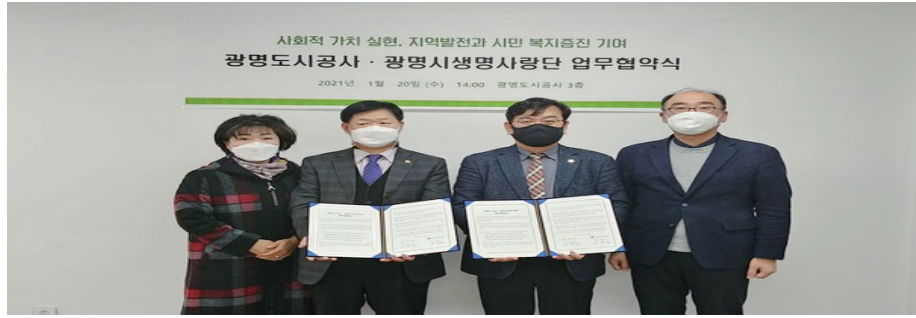
이인데 용돈을 모아 다른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에 기부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무안군승달장학회는 지난 1994년 지역 우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 2,555명에게 2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금년에도 1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생명사랑단과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광명시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광명시생명사랑단(단장 김동주)과 20일(수)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및 자살예방 캠페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명시민과 공사 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확산 ▲공사와 우수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 등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공사 사강실에서 진행됐다.김종석 사

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광명시민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공사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우수 자원봉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업무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진행한 광명시생명사랑단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향후 광명시생명사랑단과의 방역활동 자원봉사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추위도 녹이는, 향토장학금 기탁 이어져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116만원, 서면 남상마을 시금치작목반 100만원

새남해군향토장학회는 남해전통시장 상인회에서 116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20일 남해전통시장 상인회는 군수실을 방문해 116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진일 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회원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2021년에는 좋은 일을 시작해서 활기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김 회장은 "남해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친절과 웃음을 남해군 전체에 확산하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원산지 표시와 가격 정찰제를 확고히 해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남해전통시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2014년에 총 2번 32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한 바 있다.같은 날, 서면 남상마을 시금치 작목반에서 별도의 기탁식 없이, 남해군향토장학회 장학금 기탁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왔다.서면 남상마을 시금치 작목반은 "남해 보물조가 요즘 안정적인 가격으로 남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작목반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장학금 기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국장 임명

오 시장 "체육을 통한 장애인 성취감 고취, 생활체육 저변 확대 당부"

아산시 장애인체육회는 김경태를 신임 사무국장에 임명하고 지난 20일 임명장을 수여했다.신임 김경태 사무국장은 2005년부터 14년간 장애인 탁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탁구협회 사무국장 겸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해 오는 등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신임 김경태 사무국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오세현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따른 애로사항과 고충을 잘 살피서 체육으로 장애인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또 "지난해 아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장애인 생활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

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아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체육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해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연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한 2020 KPC 어워드에서 체육진흥상을 수상했다.전국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로는 아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한 수상이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국 장애인체육회에 홍보하기도 했다.

고정화기자



구리시, (주)알에프텍으로부터 'KF-AD 마스크 20만장' 전달받아

코로나19 극복 기원 관내 어려운 이웃 등 후원, 따뜻한 나눔 문화 실천

구리시는 19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알에프텍과의 'KF-AD 마스크 20만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진형 대표는 "올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 뜻깊은 기부가 될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마스크 기부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통째로 기부해주신 (주)알에프텍 이진형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시민들이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시민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청주문화재단,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 후원기업 5곳과 업무협약 “음악의 꿈, 함께 키워요”

장기 후원기업 '영광이네', '맥아당'에 이어 '이음부설 한국식문화발효교육원', '소반에', '케익하우스 청주점' 간식 후원 합류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의 음악의 꿈 수호를 위해 지역기업이 나섰다.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20일 오후 5시 동부창고 카페C에서 지역기업 5곳과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 간식 후원'업무협약 및 기부약정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으로 꿈나무오케스트라의 공식 후원사가 된 기업은 '영광이네', '맥아당', '이음부설 한국식문화발효교육원', '소반에', '케익하우스 청주점' 등 총 5곳이다.빵과 우동 맛집으로 유명한 수암골 '영광이네'와 청주 대표 간식 직지빵을 만드는 '맥아당'은 지난 2014년부터 꿈나무오케스트라와 함께 해온 장기 후원사로 이날 협약을 통해 8년 연속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시간을 선물하게 됐다.여기에, 500년 전통 청주신선주의 맥을 잇는 '이음'과 정갈한 도시락을 담은 '소반에', 신선하고 건강한 빵을 빚는 '케익하우스'가 새로이 간식 후원사로 합류해 아이들의 음악에 대한 꿈을 맛있게 지켜간다.'이음'의 박준미 원장은 "올해로 창단 10주년이 되는 꿈나무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게나마 마음을 보태게 돼 더없이 기쁘다"며 "음악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일에 더 많은 후원사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협약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케익하우스' 역시 "꿈나무오케스트라 후원사로 앞으로 더 건강하고 맛있는 빵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한편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꿈의 오케스트라'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2019년 국비 지원기간이 끝나고 재원이 청주문화재단의 출연금과 순수 후원금만으로 축소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의 간식 후원 동참은 꿈나무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결속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된 것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주문화재단 박상연 대표는 간식 후원에 선뜻 동참해준 5개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음악의 꿈을 향한 아이들의 연주가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더욱 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지역 기업의 후원 외에도 2015년부터 개인 및 단체 후원으로 구성된 '꿈나무후원회'를 결성해 아이들의 꿈을 지원 중이다.꿈나무후원회 회원에게는 매년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생일 축하 문자 발송, 정기 연주회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올해부터는 동의자에 한해 청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후원회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지역 음악 꿈나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싶은 누구나 꿈나무후원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 형태는 정기 또는 일시 후원 모두 가능하다.한편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협력'중심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의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 창단부터 청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나주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본격화... 나주신협과 MOU

2022년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신청 추진

1930년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던 '옛 나주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나주시는 20일 건물 소유주인 나주신용협동조합과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극장 부지·건물 매입·매각을 시작으로 원도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나주극장은 앞서 지난 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유휴 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긴 세월 방치된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재생공간으로 재조정해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물리적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적 재

생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나주극장이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면 나주 읍성권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인 나주정미소,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 브랜드 가치에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옛 나주극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나주천 정비사업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 잡사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극장 내부 관객석은 2층 구조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1980년대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해오며 시민들의 추억을 보유한 대표적인 근대문화시설로 꼽힌다.1990년대 이후 전면부 등을 일부 개조해 음식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지난 해 2월 주차장 부지 마련

김영안/기자

[신간] 그래봤자 책, 그래도 책 / 나를 돌보는 책

◇ 그래봤자 책, 그래도 책 / 박근호 지음 / 소명출판 펴냄 / 1만7000원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작가와 표지부터 제목, 장정까지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들이다.한 권의 책은 저자의 말대로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다.재쇄, 절판, 특별판 등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일을 만나게 된다.책에선 '수용소근도', '기상도', '동물농장', '성문종합영어' 등, 한국문학이나 해외문학이라는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장서에 대한 즐거움과 고층, 희귀본과 특별한정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희열, 편집자의 기분 등을 진술하고 재밌게 보여준다.소개되는 책들의 내용이 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즐겁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지, 내지 등 여러 도판들로 보는 재미까지 더하였다.◇ 나를 돌보는 책 / 이도 에미 지음 / 김영현 옮김 / 호소카와 텐텐 그림 / 다다서재 펴냄 / 1만5000원



에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진행하는 100가지 자기 돌봄 활동을 담았다.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 관리, 대처, 마음챙김, 심리도식치료 등 현장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따라 하다 보면 전문가와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듯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이 책을 추천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는 보통 '왜'에 집중하는 심리치유서들과 달리 이 책이 '왜'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어떻게'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을 추궁하지 않고, 괴로우면 일단 따라 해보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전순희/기자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오랜 기다림 끝 운영 재개하며 문화육구 해소

25~29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_영동, 색다른 영화 경험 기회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했던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이 21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새 수탁기관인 작은영화관주식회사가 운영을 맡아 지난해 11월 23일 새출발했던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은 코로나19의 전국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차원에서 휴관상태에 들어갔었다.이 영화관은 코로나19 확산이 감소 추세에 있고 주민들의 문화육구 해소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재개관하기로 했다.



영화관 필수 방역 수칙인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과 함께 오후 9시 이전 영화 상영 종료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1·2관 상영관별 일일 4~5편 정도 영화를 상영하며 관람료는 일반 영화 6000원이다.재개관 기념과 주민과의 소통, 제한했던 군민 문화육구 해소를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개최된다.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독립 영화 5개 섹션, 9편의 영화가 19회 상영되는 상영프로그램과 2회에 걸친 관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먼저, 상영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출발은 가족', '여성을 사랑한 영화', '영화랑 놀자' 등의 섹션을 통해 '고양이 집사', '시인 할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의 다큐멘타리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극장판 미니특공대: 공룡왕 디노', 예술의전당 연극 공연 실황 '늪은 부부이야기', 태극관 로망틱 코미디 '프렌드 존'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또한, 영화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된다.26일 오후 1시 '시인 할매'와 28일 오후 1시의 '극장판 미니특공대: 공룡왕 디노'의 상영 후, 영화 이야기를 나만의 상상력을 더해 파우치에 표현해보는 '영화 파우치 만들기'가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작은영화관 기획전_영동'의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과 방역물품 착용,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시행해 운영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상영작 관람권

은 예매 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지만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 잔여석을 꼭 확인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작은영화관에 전화 문의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참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영동레인보우영화관으로 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위험요소로 인해 원활하게 영화관이 운영되지 못했음에도,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를 무를 이겨내고 군민 문화육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주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주관의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와 영화관 운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돼 왔다.

최만식/기자

임경업장군과 강화의 명마 설화를 '원화'로 읽다

2020년 인천 해양설화 그림책 2종 공공도서관 원화전시전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인천 해양설화 그림책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그림책인 '연평도 해신이 된 임경업장군'과 '효종이 사랑한 명마, 강화 벌대총'의 원화전시전을 오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역별로 10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순회 전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인천의 해양설화를 뿌리로 한 그림책 제작을 통해 지역문화의 아카이빙을 도모하고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특화 콘텐츠로 집대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편의 인천 해양설화 그림책을 제작·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평도 해신이 된 임경업장군"과 "효종이 사랑한 명마, 강화 벌대총" 2권의 그림책을 출간한 바 있다.올해 전시기관으로는 인천 미추홀도서관, 화도진도서관, 장사래도서관 등 인천시 공공도서관 10곳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안내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전시회는 작년 '인천 해양설화 그림책



출간기념 모션그래픽 온라인 북콘서트'에 이어 인천의 해양설화 문화 및 독서콘텐츠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원화 총 20점을 선보인다.김호석 시 도서관정책과장은 "이

번 전시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천 설화를 원화로 접해보고 애함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양/기자

2021년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침체된 예술계 활성화 위해 자부담 제외 등 일부요건 완화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0월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9개 분야에 대해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범위에서 분야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중 10% 이상의 자부담 확보 조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단체 대표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비비율 1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편성해 기금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사업의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진주시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진주시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고 학교, 종교단체, 언론사 등의 단체와 영리 목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한다.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은 문화진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올해 2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문화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고있다.

최광용/기자

산업부, '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442억원 투자

공적개발원조확대로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21년 산업혁신인재 2.3만명 양성을 목표로 전년 대비 46%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BIG 3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21년 총 2,442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6% 증가한 것으로 신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선도형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BIG 3 등 신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495.9억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1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83.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학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 24억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

아울러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기업이 전액 장학금, 인턴십·실습, 취업 등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150명의 학사 인력을 양성한다.

2 코로나 19를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6.5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융합 산업의 경우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GMP 제조 시설을 활용한 구직자 대상 단기교육을 확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재학생·재직자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 친환경·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미래차 분야에는 전년 대비 75% 증액한 105.9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차 부품산업의 경우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관련 재직·퇴직자에 대해서는 미래차 분야로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위해 권역별 4개 거점 대학을 통해 720명의 기술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제조업 디지털 전환, 2 주력산업 D.N.A.융합, 3 스마트 산업 확산 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713.8억원을 지원한다.

1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내 임원, 기술인력 등 직급별 재직자 AI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 제품개발 및 공정단계에 데이터·5G·AI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해 "AI·로봇·인간·기계 협업", "데이터분석기반 전자제조"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총 12개 분야에 298.8억원을 투입한다. 4 산단 내 대학을 통해 스마트 제조공정 및 산단별 특화 업종 교육을 확대해 산단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핵심인재를 2,070명씩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60% 증액한 289억원을 지원한다. 재직·퇴직자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1,100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고급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등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452.8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원자력 분야 채용시장 축소에 대비하고 해체, 안전, 방사선 등 미래 원자력 분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공자 인턴십 및 재·퇴직자 경력전환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장 수요기반의 대학교육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무역 고도화 등 산업 기반구축 관련 인력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습형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단에 대한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로 유치해 현장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혁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 무역인력 및 FTA 특화 인력 양성에 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선도형 산업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D.N.A. 융합 등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동력인 인력양성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안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몽골,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구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ODA를 대폭 확대하고 '20년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ODA를 위해 분젠국 및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해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간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전환 선도를 위해 신규후세대 적극 동참

정세균국무총리,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과 함께 P4G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ODA와 경험·통상·안보 등 대외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개도국의 정상급 외교 시에도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ICT·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등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활용해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정부-시민사회-기업의 활동과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스타트업·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등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재원인 경험증진자금과 정책금융의 적극 활용, 혼합금융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임업 등 공공부분의 개발금융 기능도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시민사회 강점 분야에서의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감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전환 선도를 위해 신규후세대 적극 동참

과의 삼각 협력 등으로 국제협력 방식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ODA의 연계는 물론, 지자체·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했다.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함산해 진행했고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해 27개국으로 조정했다.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했다. 특히 인

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앞으로 정부는 중점협력대상국 중에서 대륙별 거점국가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5개 신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규모를 '20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ODA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주기로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함산해 진행했고 기존 24개국에서 3개국을 순증해 27개국으로 조정했다. 기존 중점협력국 중에서 사업추진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모잠비크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는 대신,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를 새로 추가했다. 특히 인

최광수기자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경기도, 올해 기술기반창업 18개 사업 146억 투자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해 쉽고 빠른 창업 환경 제공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기술기반창업지원 분야 18개 사업에 약 146억원을 투자한다. '기술기반창업'이란 정보통신, 과학기술, 교육서비스 등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최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창업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창업시설',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기업성장 맞춤형 지원' 3개 분야 18개 사업에 약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39억원 보다 7억여 원이 증가한 규모다. 우선 '창업시설' 분야로 창업허브, 스테이션 지, 경기벤처창업지

원센터, 스타트업 랩, 창업보육센터, 시제품 제작소, 경기장조경제혁신센터,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창업지원 등 8개 사업에 61억3,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들은 창업시설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자생적으로 생존·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그간 다양한 창업지원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창업교육, 데모데이,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창업허브인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해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은 경기스타트업 공정 엠엔에이, 기술이전 창업지원, 민간투자형 기술창업지원, 크라

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5개 사업에 54억3,000만여 원을 투자한다. 이는 공공 주도의 일률적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확대, 민간 주도의 역동성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경기스타트업 공정 엠엔에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한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창업기업성장 맞춤형 지원'에는 경기도창업플랫폼, 새로운 창업공모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제도전사업자 지원,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이 포

함, 총 30억3,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분야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민간 창업정보 통합제공, 스타트업과 투자자·전문가 간 온라인 협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등은 물론, 공공 창업 인프라와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기반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공모 기간 및 참여방법 등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배우 이종석, 짙은 남성의 향기 '으른美' 장착 시선 강탈

화보장인 이종석의 'B.B.B' 모먼트

배우 이종석이 짙은 남성의 향기를 풍겨내는 '으른美'를 장착하고 나타났다. 화보장인으로 불리는 그는 남성 패션매거진 커버를 장식하는 '무게감' 있는 출발로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은 오는 22일 발매되는 남성 패션-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에스콰이어'의 2021년 2월호 커버를 장식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의 소속사 에이앤프로젝트와 에스콰이어는 해당 커버와 패션화보 일부를 20일 공개했다. 지난 1월 초 서울 강남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이종석은 자신만의 무브먼트와 아우라를 뽐내며 모두를 만족시켰다. 프라다와 함께한 이번 작업은 이종석의 무게감 있는 분위기와 짙은 남성의 향기가 제대로 어우러져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공개된 커버와 화보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프라다의 2021 S/S 패션을 마치 자신의 맞춤 옷처럼 소화한 그는 프라다의 시그니처 컬러인 BLACK 계열의 의상들과 한 몸이 된 듯 남성적이면서도 은근한 '으른 섹시미'를 뽐내며 한층 성숙해진 이미지로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장시간 이어진 촬영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으른미를 제대로 보여준 이종석. 현재 그는 영화 '브이아이피'를 함께했던 박훈정 감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박 감독의 차기작인 영화 '마녀2'를 위해 헤어스타일을 잠시 변신했다. 본격적인 그의

복귀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최고치로 쏠리고 있다. 이종석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들의 관심도 크다. 특히 중국팬들은 이종석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보이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웨이보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소속사는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종석의 차기작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드라마,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의 소속사 에이앤프로젝트 측은 "차기작은 신중하게, 팬 여러분과 배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캐릭터를 선택할 것"이며 "결정이 되는대로 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석은 대한민국 30대 남자 배우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다양한 활동과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이종석의 작품 보는 눈'은 이미 업계에 검증된 사실로 탄탄한 대본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내며 믿고 보는 배우로 성장했다. 또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출연한 작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팬들이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며 친절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등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전순희기자



'암행어사' 권나라, 확실한 '한 방'으로 김명수 구했다

권나라, 날카로운 수사력+영특한 기지 발휘 김명수 구하고 범인 색출까지 1타2피

배우 권나라가 '암행어사'에서 어사단의 흥일점 흉다인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김명수를 확실한 화살 한 방으로 구해내며 완성형 다모로서 완벽히 성장했다. 또한 다인은 아버지가 죽은 절벽 앞에서 오열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비로 변신하는 등 과감한 잠행까지 감행하며 본격적인 '흉다인 타임'을 예고했다. 권나라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암행어사'에서 역졸들을 이끌고 악인들을 사로잡는 지휘력은 물론, 매의 눈으로 거짓 증거를 포착하는 저세상 수사력을 선보이는 다인의 모습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면서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암행어사'는 동시간대 드라마 1위와 함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상승기류를 제대로 타고 있다. 다인은 어사단과 함께 앵숙 파티를 연 양반집 아들들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간 김대광의 자결 소식을 듣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다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매의 눈초리로 시신을 살폈고 대광이 자결이 아닌 타살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끈질긴 수사 끝에 다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 사또라는 것을 증명했다. 위급함을 느낀 사또는 현장에서 도망간 뒤 옥에 가둔 이검을 찾아 목에 걸을 거뻐다. 다인은 익숙하지 않은 화살을 들고 이검을 구해야 하는 순간 영특한 기지를 발휘했다. 그들의 등 뒤로 화살을 쏘며 사또의 시신을 빼앗았던 것. 이 틈을 타 이검은 사또를 가격하며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인의 활약에 힘입어 연쇄 살인사건을 훌륭하게 마친 어사단은 다음 목격지 전라도로 향했다. 이때 이검은 다인과 춘삼을 한 절벽 끝으로 데려갔다. 다인의 아버지 휘영군이 생을 마감한 장소였다. 다인은 눈에 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이를 눈치챈 이검의 배려로 혼자 남겨진 다인은 절벽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휘영군의 뒷을 위로했다. 권나라는 "아버지 저 어요"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다인의 애절한 감정을 내면 깊이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전라도에 다다랐을 무렵, 어사단은 관군을 돕다 휘영군의 단서를 알고 있는 관찰사를 만나게 될 기회가 생겼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 집념 하나로 달려온 다인은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만, 그를 걱정하는 이검은 숙소에 남게 했다. 하지만 다인은 직접 사건 수사에 나서며 '직진 다인'의 면모를 보여줬다. 다인은 우연히 책비 여인을 목격하게 되고 수상한 김사를 눈치챈다. 책비는 관찰사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 결국 다인은 책비로 감영에 들어가 창질로 인해 고름을 짜고 있던 관찰사와 만나게 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 넘치는 엔딩을 맞이했다. 권나라는 어사단 합류 초반 조금은 어설퍼던 다모의 모습에서 능수능란한 수사력을 보여주며 이제는 어엿한 에이사로 자리매김한 다인의 성장 과정을 세심하게 그려냈다. 점점 발전해나가는 다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며 대미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권나라는 강인하고 대범한 다인의 모습과 아버지를 잃은 딸이 겪어야 하는 슬픈 내면들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등 몰오른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어, 앞으로 권나라가 보여줄 '흉다인 타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재은/기자

'빠꾸기가 울면 퀴즈가 출제된다'

'와일드 와일드 퀴즈' 이수근, '코 빨간 자연인' 변신

만능 재롱꾼 이수근이 '와일드 와일드 퀴즈'에서 '코 빨간 자연인'의 모습으로 포착돼 궁금증을 높인다. 멤버들을 이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이수근의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성한 '빠꾸기 산장'의 비밀이 밝혀져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일 화요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와일드 와일드 퀴즈' 측은 20일 #엔택트 시대 셀프고립 #본능에 이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인 #퀴즈퀴사를 공개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빠꾸기 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수근. 그는 '빠꾸기 산장'의 한 칸에서 불을 피우며 추운 날씨에 몸을 녹였다. 너무 익숙한 모습에 마치 그가 '주인'인 듯한 자연스런 모습이 인상적인데, 그의 빈틈없는 착장과 귀엽게 묶은 머리가 '자연인'을 방불케 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수근이 산장 주인처럼 불을 이리저리 휘젓고 있는 사이 박세리, 양세찬, 이진호, 이혜성, 밥굽남 등 6인의 멤버들이 모두 모였다. 이에 제작진이 숨겨 놓은 '빠꾸기 산장'의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빠꾸기 산장의 3대 규칙이 공개된 것. 이수근은 '빠꾸기 산장'의 3대 규칙이 새겨진 팻말을 발견, 이를 옮기 시작했다. 빠꾸기 산장의 규칙은 '빠꾸기가 울면 퀴즈가 출제된다', '퀴즈를 맞힌 자는 먹고 못 맞힌 자는 굶는다', '배고픈 자,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라'라는 단순한 규칙이었다. 하지만 이

내 멤버들을 댐봉에 빠트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체를 모를 빠꾸기 소리에 이끌려 산 속 깊은 곳으로 간 멤버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에 있는 도구들을 획득하며 긴장감 속에서 발견을 옮겼다고. 이후 빠꾸기 산장의 규칙대로 퀴즈가 시작됐고 준비 안 된 멤버들을 점점 미궁에 빠트려 혼돈의 카오스로 만들었다는

후문. 특히 단순해 보이는 빠꾸기 산장의 규칙은 '퀴즈퀴사' 그 자체로 '식재료'와 '허기짐'을 베이스로 멤버들의 본능을 자극하며 총천연색 캐릭터의 향연이 펼쳐졌다. 기대감을 높인다. '코 빨간 자연인'이 된 이수근의 모습은 빠꾸기 산장에서 열혈적으로 시간을 보낸 뒤 포착된 모습으로 만능 재롱꾼이 그가 야생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호기심을 높인다. '와와퀴' 측은 "빠꾸기 산장의 단순한 룰이 멤버들을 움아매는 웃음의 장치가 될 예정"이며 "퀴즈퀴사'인 빠꾸기 산장에서 전에 없는 의지를 불태운 멤버들의 다양한 모습은 색다른 재미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퀴즈를 맞추시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와와퀴'는 skyTV의 버라이어티 채널 NQQ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첫 공동 제작하고 첫 동시 방송하는 프로그램. '틀린 자는 굶는 진정한 승자독식 예능'이다. MBN을 비롯해 NQQ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최만식/기자

'바람피면 죽는다' 수갑 찬 고준, 국민 남편에서 살인 용의자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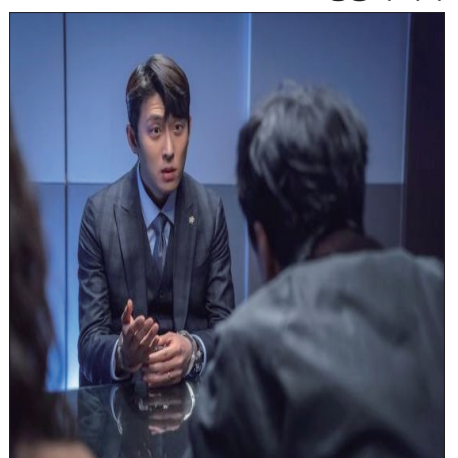
거세게 압박하는 형사 이시연 앞 결백 주장 매니저 죽인 진범은 누구?

'바람피면 죽는다' 수갑을 찬 고준이 살인 용의자로 형사들의 취조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 남편'으로 사랑을 받던 이혼 전문 변호사 고준이 한순간에 살인 용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거세게 압박하는 형사 이시연 앞에서 어떻게 결백을 주장할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20일 수갑을 찬 이혼 전문 변호사 한우성의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12회에서 우성은 아내 강여주의 부작으로 백수정 매니저 김덕기를 접견했다. 여주는 매니저에게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우성에게 자신이 직접 쓴 도시락을 건넸다. 그러나 여주의 도시락을 먹던 매니저가 갑자기 사망하고 매니저와 단둘이 접견실에 있던 우성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다.

공개된 사진엔 수갑을 찬 채 형사 장승철과 안세진의 취조를 받는 우성의 모습이 담겨 있어 시선을 모은다. 우성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장승철과 분업인 변호사 모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우성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백수정의 죽음에 이어 매니저의 죽음까지, 여주와 우성이 휘말린 끔찍한 사건들의 실체는 무엇일지, 이들을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한순간에 살인 용의자가 된 한우성과 진실을 밝혀려는 형사들 사이 팽팽한

심리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백수정 매니저 김덕기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모지 사람이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펀리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과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파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상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바람피면 죽는다'는 온라인 방송영화 플랫폼 웨이브가 투자에 참여했으며 본 방송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웨이브 독점으로 VOD가 제공된다.

정동희/기자



'신비한 레코드샵' 윤종신, 반세기 전 노래 선곡 '옛날 사람' 인증

"글씨 좀 크게 해주면 안 되냐" 노안 드림 '폭소'

JTBC 신규 음악 예능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의 윤종신이 세대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머쓱한 음악 선곡으로 '옛날 사람'임을 인증해 폭소를 자아낸다. 22일 금요일 밤 9시 첫 방송 되는 JTBC 신규 음악 토크쇼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에서는 윤종신-장윤정-규현-웬디로 이루어진 4MC가 접수된 시청자 사연을 읽고 그에 어울리는 곡을 추천해 주는 코너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을 초도화시킨 윤종신의 반세기 전 음악 선곡 장면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비한 레코드샵'은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 4MC와 함께 공동의 직업으로 묶인 게스트가 출연해 '인생 이야기'와 '인생 곡'을 소개하며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는 음악 예능이다. 2021년 JTBC에서 선 보이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신상 음악 토크쇼로 시대의

트렌드를 영민하게 포착한 기획이 눈길을 끌며 첫 방송 전부터 방송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윤종신은 사연에 딱 맞는 선곡 미션을 수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자신의 '옛날 사람' 뒀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상황을 연속으로 맛당뜨려 모두를 폭소케 했다. 함께 MC를 맡은 장윤정, 규현, 웬디와는 느낌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곡을 선곡하며 "내 세대의 노래가 생각난다"는 말로 셀프 나이 인증에 나선 것. 특히 그가 선곡한 노래는 반세기도 전인 1950년대에 발표된 MC 규현과 웬디를 감도 잡지 못할 만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물론, 장윤정에게 마저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만다. 윤종신이 선곡한 곡을 슬쩍 커닝할 만한 신상 음악 토크쇼로 시대의



민까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려버리는 리액션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폭풍 리액션도 잠시, 장윤정은 윤종신이 선곡한 반세기 전 발표된 곡을 함께 따라 부르며 한껏 흥이 난 울동으로 폭풍 공감 반응을 보여 현장을 신바람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녹화에서 윤종신은 노안이 온 듯 휴대

폰 액정 화면 속 곡 제목이 적힌 글자를 원활하게 읽지 못하고 "글씨 좀 크게 해주면 안 돼?"고 투덜대 "얼마나 화면을 더 크게 해줘야 하나"는 구박을 받는 데 이어 유명 걸그룹의 대표 곡마저 '옛날 사람'답게 깜짝하는 모습으로 큰 웃음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최정부/기자